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1907년 베트남 東京義塾의
교육·계몽활동과 국민 양성론**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채푸르니

1907년 베트남 東京義塾의 교육·계몽활동과 국민 양성론

지도교수 柳 鏞 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채 푸 르 니

채푸르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고는 베트남 東京義塾 관계자들이 남긴 1차 자료에 의거해 그들의 교육·계몽활동을 국민 양성론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이때 근대국가의 국민자격과 여성국민에 관한 논의에서 당시인들이 온고지신의 자세를 취한 점에 유의하였다.

동경의숙은 1907년 하노이에 세워진 북부 지방 최초의 근대식 민립 교육기관으로, 9개월 만에 식민당국에 의해 해산되었지만 구국을 위한 베트남인의 근대적 교육·계몽활동의 선구로서 큰 영향을 남겼다.

동경의숙은 민지를 확장하여 서구식 국민국가를 건설한다는 교육 목적 아래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였다. 교사들은 교과서 편찬에 직접 간여하였고, 학생들은 전통 학문과 근대 학문을 모두 수학했다. 교내 수업활동 이외에도 신문을 발행하고, 신서번역모임을 갖고, 연설회를 여는 등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활발한 계몽활동을 벌였다. 동경의숙은 기존의 한자로 발행되던 신문을 인수하여 『등고충보』로 제호를 바꾸고 국어와 한문을 병기해서 발행하였다.

동경의숙 교과서와 신문에는 문명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근대 국가 구상이 드러나 있다.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새롭게 건설할 근대 국민국가의 국가체제로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삼았다. 기존의 베트남 왕조를 그대로 인정하여 군주를 애국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입헌군주제로의 체제 변화를 주장한 것이다. 명목상이나마 응우옌 왕조와 그 행정기구가 남아 있었고, 군주제 전통이 강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정치 계획이나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초기 내셔널리즘이 중국이나 조선과는 달리 완전히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삼엄한 식민 정부의 감시 아래

구체적인 정권론은 전개될 수 없었고, 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동경의숙은 국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국민교육이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실업교육·도덕교육·위생·체육교육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교육은 위해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보다는 개인의 인성과 소양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주안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愛國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 애국적인 인간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국가 번영과 사회 진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동경의숙의 애국은 여전히 충의로움, 존왕애국을 의미했고, 효와 분리되지 않는 등 전통 유교 윤리 사상과 닮아있었다.

둘째, 愛群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 구국이든 사회진보든 단체의 힘이 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단체결성과 단체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기르려한 것이다. 愛群은 종족과 마을 등 소공동체 위주의 베트남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대적 애군의 대상은 그보다 상위의 광역적 사회와 국가였다.

애군하는 방법으로는 애군심을 기르는 도덕적 수양과 실제로 단체를 구성하여 행동하는 실천이 강조되었다. 합군론은 동경의숙 내의 논의로만 그치지 않았고, 실제 사회 각 분야의 단체 결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 애군론의 대두 이후 새롭게 구성된 단체의 이름은 『登高총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경의숙 구성원들이 주장한 세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愛群하고 愛國하는 국민은 문명개화와 주권 회복을 되찾기 위한 전제였다. 그리고 그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국민자격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다. 여성도 국가 조직의 일부이며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의견과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이며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제한하여 보는 시각이 양립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여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여성 교육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국가 독립과 문명화의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 교육의 수업 내용으로는 전통적인 소양과 근대적 지식을 모두 강조하였다.

한편, 여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여권은 대체로 여성 교육을 전제로 했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1900년대 초 여권이 가장 많이 논의 된 곳은 『등고총보』였다. 『등고총보』의 여성 칼럼 “여성의 말”에서는 여권과 관련하여 정략결혼, 결혼 지참금 문제, 일부다처제, 자유연애, 남성의 여성 희롱, 임신, 자녀 양육, 고아원 설립, 의복 문제, 장례식, 미신탐닉, 남존여비 사상을 얘기하였다.

동경의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 교육과 구분되는 신교육을 실시했지만, 상당정도 전통적인 유교 교육의 토대 위에서 추구되었다. 한문을 가르치고, 충의심과 존왕애국 정신을 우선하며, 중국에 의존적인 대외인식을 보인 점에서 그렇다. 이는 동경의숙 관계자들이 전통 유교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었거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경의숙의 온고지신적 국민국가 구상과 중국 중심의 대외 인식은 20세기 초 베트남 개명적 지식인들의 사상적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본고는 동경의숙의 교육·계몽활동과 그 속에 나타난 국민양성론을 1차 자료에 의거해 규명하고, 그 교육내용이 근대성과 전통을 온고지신의 관계로 아우르는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요어 : 동경의숙, 문명화, 국민 양성, 여성 국민양성, 온고지신, 등고총보

학 번 : 2008-23177

목 차

1. 서언	1
2. 유신운동과 동경의숙의 설립	6
3. 義塾의 교육·계몽활동	15
1) 보통교육: 교과과정과 교재	15
2) 교외 계몽활동: 신문발행과 신서번역	19
4. 義塾의 국민 양성론	28
1) 입헌군주제 구상 속의 국민자격론	28
2) 여성국민 양성론	49
5. 결어	58
참고문헌	62
Abstract	78

표 목 차

[표 1] 동경의숙 교과서 목차	71
[표 2] 『등고총보』 기사 목록	73
[표 3] “여성의 말” 기사 목록	76
[표 4] 동경의숙 교사 명단	77

그 립 목 차

[그림 1] 동경의숙 교과서 표지	16
[그림 2] 『등고총보』 표지	24

1. 序言

1858년에 시작된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은 1885년에 일단락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을 차례로 점령하여 2차 세계 대전 말까지 60년간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였다. 식민 지배가 시작되자 곧바로 베트남 사람들은阮(Nguyễn) 왕조를 중심으로 반식민 무력 투쟁을 벌였으나 전력의 열세와 지도력의 부족으로 무력 투쟁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장차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는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다. 1860년부터 1885년 사이에 태어나 1900년경부터 독립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이들 신세대는 유교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이자 외부로부터의 영향, 즉 서구 근대 사상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첫 세대였다.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이른바 新書로 이를 통해 접한 서구의 근대적 민족주의에서 베트남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¹⁾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을 유교 전통 고수, 근대 사상 미흡, 전제정의 폐해로 보았던 이들 開明的 知識人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문명개화를 이룬다면 주권 회복도 가능하다고 믿었다.²⁾ 문명개화는 생존경쟁의 국제무대에서 견재할 수 있는 근대 국가를 세워나가기 위한 목표이자 방편이었다. 문명개화는 開民智를 전제로 했고, 민지 확장의 방법으로는 교육 개혁에 주목했다. 즉, 근대 국가의 초석으로 여긴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프랑스 식민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개명적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교육 개혁 운동에 매진했다.³⁾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교육 개혁 운동은 동경의숙 운동으로,

-
- 1)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012, p.291; 윤대영,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베트남의 ‘新書’ 수용-초기 개혁운동의 기원과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117, 2011, p.362.
 - 2) 白石昌也, 「開明的 知識人層の形成」, 『東南アジア研究』 13-4, 1976, p.560.
 - 3) Trần Thị Phương Hoa, “From Liberally-Organized to Centralized Schools: Education in Tonkin, 1885 - 1927”,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8, No 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7.

근대식 보통교육을 실시하려는 자주적인 노력이었다. 동경의숙은 1907년 3월 개교하여 동년 11월 프랑스 당국에 의해 폐쇄될 때 까지 비록 짧은 시간 존재했지만,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첫째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베트남의 봉건적 제도, 도덕을 온존·이용하려 하고 있던 때에 동경의숙은 봉건 도덕과 과거·관리 제도 등에 반대하였다. 둘째, 식민지 정권이 베트남 국민의 민족의식의 등장을 두려워 해 우민정책을 행하고 있을 때에 동경의숙은 베트남의 역사와 지리 등을 가르치고 국어의 보급에도 진력하여 민중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셋째 서구출판물의 번역소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근대 사상의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⁴⁾ 또한 동경의숙이 폐쇄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심하던 사실, 프랑스는 베트남 사람들이 아둔하고 약하길 원하고 있으며 “문명전파”는 프랑스 정치의 잔인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베트남 국내외에서는 1937년 동경의숙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인 『東京義塾』 이⁵⁾ 나온 이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선행 연구들은 식민정권에 대항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동경의숙을 파악하여 주로 동경의숙의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反植民 활동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동경의숙이 보통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근대 교육 기관이었음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 활동의 내용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 활동의 실상은 학교의 기관지인 『登鼓總報(Đăng cổ tòng báo)』와 교과서, 문집 등의 1차 사료를 근거로 밝혀야 한다.

1차 사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등고총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응우옌 티 농(Nguyễn Thị Nhung)의 연구가 있다. 그는 편집인 응우옌 반 빈(Nguyễn Văn Vĩnh)의 언론 활동을 조망하면서, 응우옌 반 빈이 8년

4) 유지열, 『베트남민족해방운동사』, 이성과학실사, 1986, p.56.

5) Đào Trinh Nhất,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 Mai Lĩnh, 1937.

6) 동경의숙 설립 100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Nhiều tác giả,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 100년)』, Nhà xuất bản(이하 Nxb로 약함) Tri thức, 2008.) 기타 자세한 연구 성과는 Trương Bích Hạnh, 「100 năm nghiên cứu Đông Kinh nghĩa thục ở Việt Nam: kết quả và triển vọng(베트남의 동경의숙 연구 100년; 결과와 전망)」, Kỳ yếu hội thảo: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công cuộc cải cách giáo dục Việt nam hiện nay, 2012. 발표문 참고.

간 쓴 언론 기사 전체를 분석하였다. 특히 舊習을 비판하는 기사를 살펴
면서, 『東洋雜誌』와 『登高叢報』의 기사 일부도 분석하였다.⁷⁾ 『登高
叢報』의 기사를 분석한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분석한
기사의 양이 적고 특정 주제에만 집중하여 신문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피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1차 사료인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1종류의 교과서
만 대상으로 삼아 학교 전체의 교육 이론을 조망하지 못했고, 근대성을
찾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⁸⁾ 이는 동경의숙이 북부 지역 최초의 근대 교
육 기관이었다는 상징성에 갇혀 동경의숙의 근대적인 면만 강조한 것이
다. 그러나 전통과 근대가 단절되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의 가치관인 전
통 의식 위에서 근대 개념이 받아들여짐을 유의할 때, 근대성뿐만 아니
라 전통, 곧 전근대와의 연관성도 살펴야 한다. 또한 여러 종의 교과서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명적 지식인들은 새로운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교
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경의숙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므
로 동경의숙 관계자들의 국민형성 내셔널리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7) Nguyễn Thị Nhung, 「Nhà báo Nguyễn Văn Vĩnh với việc phê phán thói hư
tật xấu trên báo chí(언론에 나타난 언론인 응우옌 반 빈의 고무한 악폐 비판
)」, Luận văn Thạc sĩ,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2014.

8) 이에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Nguyễn Văn Kiệt, 「Góp thêm vào
sự đánh gi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 평가에 덧붙여서)」, 『Nghiên
cứu Lịch sử』 4 (293), 1997; Nguyễn Thị Mai, 「Nghiên cứu Hán văn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한문에 관한 연구)」, Luận văn Thạc sĩ,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2011; Nguyễn Kim Sơn, 「Tư tưởng luân
lý mới của các nhà Nho Duy Tân trong “Tân đí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
정윤리교과서”속에 보이는 유신 유학자들의 새로운 윤리사상)」, 『Triết học』
4, 2009.

9) 이에 관해서는 今井昭夫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베트남 근
대 국민국가 구상을 설명하면서 개명적 지식인들의 글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개명적 지식인들이 근대 민족주의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국민국가 구상의
내용을 ‘정권론, 국민의 설정, 신성한 국토, 학문의 변화, 국민교육, 산업의 진흥’
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최초로 국민(nation) 구상을 살핀 연구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류한 내용 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국민의 범위를 소개하는데 그쳐
사회 일반에서 근대 국민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대되었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여성을 국민에 포함시켜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
끌어들여려는 논의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 동경의숙의 교과서 중 일부를 여러

또한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 교육의 내용과 개명적 지식인들의 女權 논의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들에 유의하여 동경의숙 관계자들이 남긴 1차 자료에 의거해 그들의 교육·계몽활동을 국민 양성론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국민국가의 구상은 국가제도(state)의 설계와 국민(nation)자질의 양성으로 나뉘 이해할 수 있으나 본고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이유는, 당시 국민국가의 국체(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를 둘러싼 논의가 극히 미약했고 더구나 “보호국” 형태의 식민지 조건이어서 입헌군주제를 암묵적으로 당연시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화 하였으나 응우옌 왕조를 멸하지 않고 명목상 존속시켜 보호국 형태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왕조를 부정하는 공화제에의 관심과 논의는 적어도 신해혁명의 영향이 도래하기까지는 나오기 어려웠다.

국민양성론에 초점을 두어 동경의숙의 교육·계몽활동을 밝히되 교과과정과 교과서, 번역출판 등의 의숙 운영 실태를 규명하고, 특히 문명화론, 국민 자격론, 여성 국민론 등을 다룰 때 전근대와의 단절에 치중해온 기존 연구와 달리 당시인들이 온고지신의 자세를 취한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주요한 1차 자료는 다음 두 종류이다. 하나는 동경의숙 교과서로 『文明新學策(Văn minh tân học sách)』, 『新訂國民讀本(Tân đính Quốc dân độc bản)』, 『新訂倫理教科(Tân đính luân lý giáo khoa thư)』, 『國文習讀(Quốc văn tập đọc)』, 『海外血書(Hải ngoại huyết thư)』 이다. 다른 하나는 동경의숙 관계자들의 문집 『新越南(Tân Việt Nam)』, 『越南亡國史(Việt Nam vong quốc sử)』, 학교기관지 『登鼓總報(Đăng cổ tùng báo)』 이다. 교과서, 신문, 문집은 교사들이 직접 편집하고 인쇄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 보급하며 서점에서 판매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배포하였다

자료 중의 하나로 분석하여 교과서가 실제로 교육되는 곳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개명적 지식인들이 남긴 신문, 잡지 등 언론에 대한 분석도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今井昭夫, 「20世紀初頭のベトナムにおける開明的儒學者たちの國民國家構想」, 『アジアの國民國家構想-近代への投企と葛藤』, 青木書店, 2008.

는 점에서 동경의숙 구성원들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다.

2. 유신운동과 동경의숙의 설립

1897년 근왕 운동 실패 후 반식민 무장 투쟁이 주춤해지자 문화·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프랑스의 협조와 묵인 아래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회 개혁을 이룬 후에 주권을 회복하자는 온건한 민족 운동으로, “維新(Duy tân) 운동”이라고 불렸다. 유신운동은 지도자에 따라 구체적인 운동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1903~1908년 사이에 개명적 지식인들이 주도한 문화·사회 개혁 운동을 통칭했다.¹⁰⁾

“유신”은 일본의 明治維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1904년 판 보이 쩌우(Phan Bội Châu)가 설립한 조직의 이름(維新會)이었고, 1907년부터 1916년까지의 연호이자 황제를 부르는 칭호이기도 했다. 1907년 8월 『등고충보』의 “유신” 기사에 따르면, 유신은 생활방식, 사고방식, 옷차림, 여성관, 세계관, 교육관, 국가관, 경제 활동 등 모든 면에서의 근대적 개혁을 의미했다.¹¹⁾ 이에 기반한 유신운동 또한 서양의 신문명을 수용하여 문명개화를 이루려는 근대 지향적인 사회 개혁 운동이었다. 문명개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판 쩌우 쩌(Phan Châu Trinh)은 1903년 開民智, 進民氣, 厚民生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開民智를 문명개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開民智의 방법으로 교육에 주목했다. 그러므로 유신운동 가운데서도 교육 분야의 개혁을 주장한 운동을 유신교육운동이라고 불렀다.

유신교육운동은 베트남의 전통 교육과 프랑스 식민 정부의 우민화 교육 정책을 모두 비판했다. 판 보이 쩌우는 “낡은 전통과 전통 교육은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민족 해방을 위해 몸 바칠 높은 이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1905년 판 보이 쩌우가 구술하

10) Sơn Nam, 『Phong Trào Duy Tân Ở Bắc Trung Nam - Miền Nam Đầu Thế Kỷ XX(20세기초 남부 북중부의 유신운동)』, Nxb Trẻ, 2009, p.11.

11) 『Đăng cổ tùng báo』 1907.8.8.(812)

12) 오구라 사다오,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사』, 일빛, 1999, p.209.

고 梁啓超가 편집한 『월남망국사』는 프랑스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다른 문명국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학술도 배워서 재능과 지혜가 향상되면 자신들의 의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쓸모없는 과거 공부에만 매달리게 한다고 비판하고, 프랑스 식민 정권이 제공하는 교육은 노예가 되는 교육이라고 주장했다.¹³⁾

유신교육운동은 자주적인 교육 개혁을 통한 문명개화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개명적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동경의숙 교과서 『문명신학책』에는 교육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온다. 교육 개혁을 위해 먼저 보통교육 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군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지식이 열릴 때 문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를 가르치고, 사서오경 중심의 교재 내용을 교정하고, 시험법(과거제도)을 바꾸고, 인재를 육성하고 유학과 취업을 국가가 보장하며, 상공업을 교육하고, 국어로 된 신문을 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7가지 교육 개혁 방안은 유신교육운동의 사상적 기반이자 실천 전략으로, 동경의숙에서 대부분 실천되었다.¹⁴⁾

유신교육운동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東遊(Đông du) 운동과 베트남 내에 근대 보통교육 기관을 설립하자는 동경의숙 운동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유신교육운동인 동유운동은 인재 교육 운동으로 판 보이 찌우가 주도했다. 판 보이 찌우는 1904년 5월 유신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원조를 얻은 목적으로 1905년 1월 일본으로 가서 康有爲, 양계초 등을 만나게 된다. 이때 양계초는 그에게 일본의 지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과 문필을 통해 베트남인의 처참한 식민지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유학을 통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조언했다. 양계초의 조언을 받아들인 판 보이 찌우는 그 해 『월남망국사』를 시작으로 『해외혈서』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베트남인들을 각성시켰고, 1905년 8월부터 베트남 유학생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한국, 태국, 인도 등지

13) 巢南子 述, 『越南亡國史』, 上海, 光緒31(1905); 안명철·송엽휘 역주, 양계초 편저,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pp.76~77.

14) Chương Thân,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1, Nxb Hà Nội, 2010.

의 유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던 東亞同文會가 베트남 학생들의 同文書院 입학을 결정하면서 베트남 청년들의 일본 방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¹⁵⁾ 1906년 판 보이 쩌우가 3명의 학생을 데리고 온 이래 일본 유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07년에는 100여 명에 달했고 1908년에는 200명을 넘었다.¹⁶⁾ 그러나 이들 중 단지 4명만이 학비를 면제받았다.¹⁷⁾ 이들 외에는 모두가 자비 유학이었으므로 동유운동은 처음부터 심각한 자금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 국내의 유신운동가들은 자금 후원 활동을 벌여 동유운동을 지원하였다.

유신교육운동이 민지의 확장을 목적으로 했다면 동유운동은 先인재육성 後민지확장을 목표로 했다. 이는 근대 사상에 능한 소수의 인재를 육성하여, 국민 전체를 문명개화의 길로 이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판 보이 쩌우는 1905년 8월 하 먼 성에서 동지들과 만나 똑똑하고 학문에 능하고 인내심이 강한 젊은이들을 선발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경비와 안전상의 문제로 다수의 학생을 유학 보낼 수 없으므로 소수의 똑똑한 젊은이를 뽑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 시대의 엘리트 교육과는 달리, 신분의 제한 없이 누구나 배우러 갈 수 있었고, 관리 양성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동유운동을 계기로 유학을 떠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오는 일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일로 여겨졌다. 일본·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특히

15) 東亞同文會는 귀족원의장 近衛篤磨의 후원 하에 同文·同種인 중국의 문명을 학습한다는 취지에서 1898년 11월 창설되었다. 동아동문회는 중국인 유학 사업을 진행하면서 1901년 동경 동문서원을 직접 설립·운영하였다. 동문서원은 청국 유학생을 수용하고 각 전문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를 교습하는 곳으로 출발하였다. 개교 당시 1학년 과목은 수신, 일본어독법, 일본어회화, 일본문법, 산학, 영어, 체조였으며, 2학년 과목은 1학년 과목에 번역, 물리과학, 지리, 역사가 추가되었다. 동문서원은 13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학생이 200명까지 증가하였다. 학교는 신해혁명까지 유지되었지만 1922년 ‘대중국 21개조’ 요구 때문에 반일감정이 고조되자 폐쇄되었다. 20년간의 졸업생은 874명이다. (채수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범, 동아동문회』, 경북대 출판부, 2012, pp.214~216.)

16) 윤대영,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동아연구』 53, 2007, pp.298~299.

17) 4명의 이름은 쩌 흐우 공(Trần Hưu Công), 르엉 립 남(Lương Lập Nam), 응우옌 지옌(Nguyễn Diên), 르엉 니 카잉(Lương Nghi Khanh)이다.(배양수, 「판 보이 쩌우와 동유운동의 역사적 의미」, 『외대논총』 24, 2002, p.233.)

프랑스)으로의 유학도 널리 권장했다. 동경의숙 교과서는 유학의 이로움을 설명하며 동유운동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유학은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하며, 유학을 가지 않아 베트남이 쇠약해졌다고 했다. 유학을 가서 실용적이며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문명선진국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약한 곳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명신학책』은 민지를 열고 싶다면 紳士派의 지식부터 열어야 한다는 중국 強學會의 글을 인용하여, 강학회의 글은 아주 옳으며 근본을 발견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중은 유학자 무리를 따르고 後生은 先輩를 따르기 때문이다. 인재가 새롭게 늘린 지식을 발휘한다면 낡고 부패한 구세계는 자연스럽게 신세계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⁸⁾ 재능이 있는 자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모세(Moses)·콜럼버스(Columbus)·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업적을 세운 일을 얘기하며 베트남 사람들은 국내에만 있기 때문에 학식이 넓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집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슬퍼하고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쳐야 할 구습이라고 했다.¹⁹⁾ 『신정국민독본』 또한 베트남인들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한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족이나 이웃과 멀어지면 눈물부터 흘리고 집을 떠난 지 10일도 안 돼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志趣는 비천하며(卑) 見聞은 좁으니(陋), 그런 자에게 사회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식을 외국에 보내 실업학교에서 공부하게 하면 과거 합격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학을 권유하였다. 유럽이 강한 것은 遠遊했기 때문이며, 遠遊하지 않은 베트남은 지식이 열리지 않고 생계는 넉넉하지 않으며 국력은 날마다 약해지고 국가는 위협에 처했다고 했다.²⁰⁾ 『국문습독』은 일본, 중국, 미국, 유럽으로 건너가 신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해서 국내에 알리는 일은 국가에 이롭고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으로 유학 가는 인재에게는 미국, 유럽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18)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앞의 책, p.187.

19)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앞의 책, p.181.

20) Chương Thân,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Đông Kinh Nghĩa Thự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1, Nxb Hà Nội, p.254.

약한 점을 연구하여 국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동유운동에 이은 두 번째 유신교육운동은 근대 보통교육 기관으로 동경의숙을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 동경의숙은 1907년 개명적 지식인들이 힘을 합쳐 설립한 북부 지방 최초의 근대식 교육 기관이다. 동경의숙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에서 1858년에 연 慶應義塾을 본 따 설립하였으며, 東京이라는 이름은 胡朝 시대의 하노이의 이름에서 가져왔다.²¹⁾ 한편으로는 동경은 일본의 수도 이름과도 같아서 중의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²²⁾ 그러나 비슷한 시기 편찬하여 동경의숙의 참고서로 활용한 『월남망국사』에서 양계초와 판 보이 쩌우가 東京이라는 한자를 하노이를 일컫는 용어로 오해 없이 사용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동경의숙이라는 이름은 일본 동경보다는 하노이에 생긴 사립학교라는 뜻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의숙이라는 이름은 동경의숙의 설립자 중의 한 명인 다오 응우옌 포(Đào Nguyên Phổ)가 제안한 것으로 돈을 받지 않고 큰 뜻을 목표로 가르치는 개혁적인 학교라는 뜻이었다.²³⁾ 동경의숙은 좁은 의미에서는 4백 명~천 명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사립 학교였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民智를 확장하여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베트남 최초의 근대적 대중 교육이자 문화·사회·경제·정치 개혁의 시작이었다.

동경의숙 이후 梅林義塾·玉川義塾 등이 생겨나 교육 개혁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노이 인근 성인 하 동(Hà Đông), 박 닌(Bắc Ninh), 흥옌(Hưng Yên), 하이즈엉(Hải Dương), 타이 빈(Thái Bình)은 물론이

21) 호조는 베트남 역사 상 짧은 시간 존재했지만, 교육과 문화 부분에 대한 개혁으로 유명했다. 호 꾸이 리는 타인 호아 지방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여 천도하면서 새로운 수도는 西都라고 부르고 옛 수도인 탕롱(하노이)는 東都라고 이름 붙였다. 반세기 후 레 러이는 동도를 東京으로 개칭하고 이곳에서 레 왕조를 세웠다. 동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다시 한 번 사회에 강력한 교육 개혁의 바람이 불길 원했을 것이다. (Đặng Quốc Báo, 「105 năm Đông Kinh Nghĩa Thục (1907-2012): Bài học kinh nghiệm cho đổi mới giáo dục hôm nay(105년 동경의숙; 오늘날 교육 개혁에 주는 경험담)」,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 2012.)

22) Nguyễn Văn Hạnh, 「Đông Kinh nghĩa thực với mô hình giáo dục mới và tinh thần tự phê phán dân tộc(동경의숙과 새로운 교육모형, 민족자아비판정신)」,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hà Xuất Bản Tri Thức, 2008.

23) Đào Duy Mẫn, 「Đào Nguyên Phổ và Đông Kinh nghĩa thực(다오 응우옌 포와 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p.349.

고 예 안(Nghê An), 하 띵(Hà Tĩnh), 팡 남(Quảng Nam), 팡 나이(Quảng Ngãi), 빈 투언(Bình Thuận) 지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하이 즈엉에서는 동경의숙의 유신 사상을 받아들여 “많은 애국 유학자들이 유신을 고무하고 선동하기 위해 일어섰다. 따 싸(Tạ Xá) 마을, 남 싸익(Nam Sách) 현에서 동경의숙의 책과 애국시문을 읽는 독서회가 생겨났다”는 기록이 있었다.

동경의숙 운동은 인재 육성을 주장하는 동유운동과는 달리 국민 전체의 민지를 열자는 보통교육 운동이었다. 또한 보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강제 조항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동경의숙은 개교 당시 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성별, 연령, 신분,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든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히 여성도 교육받을 수 있었다.

동경의숙은 역사상 가장 풍부하고 광대한 지식 역량의 집합소였다. 동경의숙의 관계자들은 구학과 신학에 골고루 소속된 진보적 애국 지식계층이었다. 이들은 1860년대에서 1880년 중반에 태어난 이들로,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중국의 고전들을 어려서부터 배운 점에서는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르다고 하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소위 신서를 받아들여 군주에의 충성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고 프랑스 지배 하에서 베트남 국가의 멸망이라든가 베트남인의 멸종이라는 위기의식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²⁴⁾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은 문신 르엉 반 깐(Lương Văn Can)과 응우옌 꾸옌(Nguyễn Quyèn)이 교장과 이사장이 되었다. 23살의 擧人 즈엉 바 짝(Dương Bá Trạch) 같이 젊은 사람과 進士 호앙 땅 비(Hoàng Tăng Bí), 니옌 쑤언 꾸앙(Nghiêm Xuân Quảng)이 교사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응우옌 반 빈(Nguyễn Văn Vĩnh), 팜 주이 톤(Phạm Duy Tồn), 응우옌 바 혹(Nguyễn Bá Học)과 판 보이 쩌우, 판 쩌우 쩌, 응우옌 트엉 히옌(Nguyễn Thượng Hiến), 노 득 케(Ngô Đức Kế), 다오 응우옌 포가 참여하였다.

24)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사』, 이산, 2002, p.181.

학교 설립에 대한 구상은 『신월남』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⁵⁾ 『신월남』은 판 보이 쩌우가 1906년~1907년 사이에 쓴 글로, 유신회의 행동 강령으로도 간주된다. 『신월남』은 베트남이 문명화와 독립 회복을 이룬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불완전한 교육 시스템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은 인간 행동을 주조하고 정치를 세우는 기초로,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중요했다. 낡고 보수적인 전근대 교육 시스템 개혁은 일본, 중국, 유럽의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초기에는 일본, 유럽, 미국에서 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육의 일을 맡기자고 했다. 학교를 설립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일본과 유럽의 좋은 모델을 따를 것을 주장했다. 교육 과목으로는 철학, 문학, 역사, 정치, 경제, 군사학, 지리, 산업, 상업, 농업, 가정학, 약학, 임학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충분한 수의 교사 양성을 강조하였으며, 재산·신분·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수단이 되는 국어를 가르치고, 학교에서 쓰이는 교재는 교육부가 준비해서 배포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문명국의 근대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과목, 교수 언어, 교재, 교사 양성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동경의숙 운동은 식민 정권 아래 이루어진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프랑스는 개화를 목적으로 1906년 1월 16일 교육개선의정을 선포하여 베트남 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식민 정권의 허가가 필요했다. 프랑스 당국은 동경의숙의 “義”와 義軍의 “義” 사이의 상징성을 놓고 2달 동안 숙고한 끝에 학교의 운영을 허락했다.²⁶⁾ 동경의숙의 교육 내용이 프랑스 식민 정부가 제시한 프로그램과 모순되는 점이 없었기에 동경의숙을 프랑스에 협조적인 개량학교라고 간주한 것이다. 친프랑스적 인물인 응우옌 반 빈이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동경의숙 설립 모임에 합류한

25) Truong buu lam, “The New Vietnam” *Colonialism Experienced vietnamese writings on colonialism 1900-1931*,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p.113~115.

26) Neil L. Jamieson, *Understanding Vietna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68.

것도 프랑스의 허가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동경의숙이 개교한지 한 달 만인 4월 25일자 『등고총보』에는 동경의숙의 개교를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 동경의숙의 개교를 알리고 사람들의 자금 지원과 자원 봉사를 독려하기 위해 쓴 글이었는데, 개교 직후의 동경의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동경의숙에는 400 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반, 한자반, 아동반, 어른반, 여성반, 남성반, 주간반, 야간반 등으로 나누어 편성되었다.²⁷⁾ 학교가 운영되는 9달 동안 총 40개 반에 천 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하였다.²⁸⁾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았고, 무료로 붓, 교과서, 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지급 받았다. 가난한 학생들은 식당과 기숙사도 이용할 수 있었다.²⁹⁾

학교는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학교 건물은 교장인 르엉 반 간의 집을 개조해서 사용하였고, 일부 교실은 절이나 민간인의 집을 이용하였다. 운영자와 교사는 처음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으나 학부모와 지역 호심가들의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매달 4동(쌀 60kg가 2.5동)씩 받았다.³⁰⁾ 프랑스의 압력으로 1907년 12월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재정은 만 피에스터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는 학교를 몇 달간이나 더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³¹⁾ 학교의 운영은 교육반, 재정반, 선전반, 편찬반에서 맡았다. 재정반은 돈의 수납지출과 교사들의 월급을 담당했고, 교육반은 응우옌 꾸엔이 책임을 맡아 학습, 교수, 입학을 담당했고, 선전반은 효과적으로 도시 사회와 농촌에 유신 사상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고, 편찬반은 교장인 르엉 반 간이 직접 지도하여 교과서와 선전 자료를 편집하는 일을 맡았다.

27) 『Đăng cổ tùng báo』 1907.4.25.(797)

28) Chương Thâu, 「Đông Kinh nghĩa thực trong phong trào Duy Tân đổi mới văn hoá Việt Nam đầu thế kỷ XX(20세기초 베트남 문화를 바꾼 유신운동 속의 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29) Vũ Đức Bằng, “The Đông Kinh free school movement 1907-1908”, *In Aspects of Vietnamse History*,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3, p.35.

30) Trịnh Tiến Thuận, 「Fukuzawa Yukichi - Kháng ũng nghĩa thực(Keio Gijuku) của Nhật Bản và Đông Kinh nghĩa thực ở Việt Nam(일본의 게이오 의숙과 베트남의 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31) Vũ Đức Bằng, 위의 글, p.4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유운동과 동경의숙 운동은 민지 확장을 목표로 한 교육 개혁 운동이었다. 국민을 지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동유운동과 보통교육과 시민교육을 함께 담당했던 동경의숙 운동은 상호 보완하며 국민 전체의 민지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교육을 통해 민지를 확장하여 국가의 문명화를 이루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주권 회복과 국가 독립을 추구했다.

3. 義塾의 교육 · 계몽활동

1) 보통교육: 교과과정과 교재

동경의숙은 민지를 확장하여 서구식 국민국가를 건설한다는 교육 목적 아래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였다. 동경의숙의 교육 활동은 교내 수업 활동과 교외에서의 신문발행과 신서번역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내 수업 활동을 보면, 동경의숙의 교육과정은 소학과 중학으로 나누어졌다.³²⁾ 입학 연령에 제한 없이 학생들은 사전지식과 흥미에 따라 8개의 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며, 졸업시험 등의 일체 자격시험을 치지 않았다.³³⁾ 수업 과목으로는 역사, 지리, 자연과학, 위생, 수학, 경제, 외국어, 윤리, 체육, 공민 등이 있었다.

교과서를 보면, 자연과학 과목은 프랑스 소학교의 교과서를 사용하였던 반면 사회 교과서의 교과서는 교사들이 직접 편찬하여 사용하였다.³⁴⁾ 교과서를 편집하기 전에 책의 관념을 통일하기 위해 교사들은 자주 교류하였다.³⁵⁾ 교과서는 여러 차례 재간되어 이윤을 남기지 않고 서점에서 팔리거나, 비슷한 이상을 공유하는 다른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다. 교장인 응우옌 꾸옌에 따르면 『신정국민독본』은 학교 인쇄

32) Trương Hữu Quýnh, 『Đại cương lịch sử Việt Nam(베트남역사대강)』, Nxb Giáo dục, 2014, p.632. 반면 동경의숙이 소학, 중학, 대학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Phong Lê, 「Sau 100 năm - Từ nguồn sáng Đông Kinh nghĩa thực(100년후-동경의숙의 기원에서부터)」,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p.27)

33) David G. Marr, *Vietnamese Anticolonialism 1885~1925*,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71, pp.164~165; Hoàng Như Mai,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p.19.

34) Phan Ngọc Liên, 『Lịch sử 11 Nâng cao(역사 11 심화)』, Nxb Giáo Dục, 2007, pp.271~272.

35) Vũ Ngọc Khánh, 「Một nhà trường mở đầu nền giáo dục mới(신교육의 장을 연 학교)」,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p.51.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책으로 수 만 권 이상이 인쇄되어 9개월간 사용되었으며, 다른 서점에서 들어온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였다.³⁶⁾

동경의숙에서 편찬한 교과서에는 고유한 문양이 있었다. 어린 소년이 한발을 든 채 한손으로 지구본을 메고 있는 모양이다. 위도와 경도가 표시된 지구본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이 그려져 있다.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축소되었다. 소년은 맨발이며 반팔 티셔츠의 앞섶을 풀어헤쳤고, 모자를 쓰고, 눈은 감고 있으나 입은 웃고 있다. 자신의 몸보다 큰 지구본을 한손으로 들고 있으나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한 발을 들고 서 있어, 지구본 드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그 시대의 소망을 보여주는 적절한 상징이었다.³⁷⁾ 동경의숙에서 편집한 교과서 중에서 현존하는 교과서로는 『문명신학책』, 『신정국민독본』, 『改良蒙學國史教科書』, 『南國偉人傳』, 『南國佳事』, 『신정윤리교과서』, 『신정남국지여교과서』, 『국문습독』, 『해외혈서』가 있다.³⁸⁾



동경의숙 교과서 표지 사진 (출처: <http://lib.nomfoundation.org/collection/1/volume/582/>)

교과서는 교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한 책이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의 기본 매체가 되며, 학생에게는 학습할 내용을 담은 기초 자료가 된다. 교과서는 교육 목표

36) Vũ Đức Bằng, 앞의 글, pp.47~48.

37) David G. Marr, 위의 글, p.171.

38) Chương Thâu, 「Về một sưu tập văn thơ Hán Nôm của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의 한문시문수집에 관해)」, 『Thông báo Hán Nôm học』, 2006.

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으로, 교육관이나 시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 교과는 공민 교과와 윤리 교과이다. 그러므로 공민 교과서와 윤리 교과서를 통해 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국민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동경의숙 교사들은 교과서를 직접 편집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감되거나 바뀌는 부분이 적었을 것이다. 공민 교과서로는 『문명신학책』, 『신정국민독본』, 『해외혈서』, 윤리 교과서로는 『신정윤리교과서』가 있다. 『국문습득』은 국어 교육과 공민 교육을 함께 담당했다.

『文明新學策』은 동경의숙 개교 이전에 편집하여 1907년에 인쇄한 공민 교과서로, “문명을 달성하기 위해 신학을 여는 계책”이란 뜻이다.³⁹⁾ 한자를 사용했고, 전통 한문 서술 방식에 따라 세로로 적었다. 총 38장으로 베트남의 낙후한 상황을 서양 문명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문명국이 되기 위한 민지를 여는 6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6가지 전략은 동경의숙의 교육 강령이 되어 동경의숙 설립과 활동의 기초가 되었다.

『新訂國民讀本』은 국민교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공민 교과서이다.⁴⁰⁾ 1907년에 편집했고, 12~13세 학생들을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한자로 썼고, 총 188장이다. 제호 그대로 “국민”에게 필요한 제재들을 “독본”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교과서로, “독본”이란 근대적 용어를 붙임으로써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와 형식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했다. “독본”은 일본에서 수입한 용어로 여러 가지 읽을거리를 모아놓은 선집이라는 뜻이었다.⁴¹⁾ 국가, 사회, 경제, 관리, 교육, 군정, 부세, 법률, 교통, 경찰, 공업, 통상, 종교, 통계 등 총 64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일본은 정부, 의회, 학교, 지방제도, 징병, 재판, 형벌, 경찰에 관한 7항목, 중국은 사법에 관한 1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新訂倫理教科書』는 1907년 2월 27일에 편집한 윤리 교과서이다. 한

39) Chương Thâu, 앞의 책(1권), p.169.

40) Vũ Ngọc Khánh, 앞의 글, p.53.

41) 강진호, 「전통교육과 ‘국어’교과서의 형성-소학독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1, 2014, p.102.

문으로 썼고, 한 장에 36줄이며, 총 72장이다.⁴²⁾ 편집자는 팜 트 쩡(Phạm Tư Trục)으로 유일하게 성명이 남아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편집한 다른 교과서의 경우 저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호는 ‘새롭게 고쳐 쓴 윤리 교과서’라는 뜻으로, 전체 7절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제호와 목차에서 전통 유교 윤리와 다른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전통 윤리에는 없던 의원 선거, 자녀 의무교육, 위생에 관한 내용이 생겼으며, 사회 항목이 추가되어 공의, 공덕을 새롭게 지켜야 할 사회 도덕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또한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향하는 전통 유교 윤리의 논리 순서와는 달리 국가-가족-개인-사람-사회-동물 순서로 제시하였다. 천천히 범위가 좁아지다가 다시 밖으로 퍼지는 모습이다. 국가부터 개인까지는 수직 방향으로 범위가 줄어들고, 개인부터 동물까지는 수평 방향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팜 트 쩡은 머리말에서 윤리 과목을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본”이라고 소개했다.

『國文習讀』은 국어 교과서로 국어 읽기 연습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애국과 유신을 주장하는 19편의 시를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⁴³⁾ 공민 교육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1907년 인쇄했고, 저자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총 40장이다. 국어, 애국, 애군, 遊學, 신문을 권장하는 시부터, 베트남의 역사지리를 설명하고, 여성·아이·남편에게 충고하고, 음주·아편·도박·미신을 비판하는 시들이 실려 있다.

『海外血書』는 판 보이 쩌우가 일본에서 1906년 처음 출판했다. 이후 베트남으로 보내 애국사상을 전파하는 자료가 되었다. 동경의숙은 1907년 이를 인쇄하여 교과서로 사용했다.⁴⁴⁾

동경의숙에는 비공식 교과서도 있었다. 공식적이 아니라는 뜻은 비밀리에 가지고 교수했다는 뜻이 있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파용으로 외부 사람과 학생들에게 숨겨서 유통시켰다는 뜻도 있다.⁴⁵⁾ 내용의

42) Nguyễn Kim Sơn, 앞의 글, pp.45~58.

43) Trần Thanh Đạm,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ực - Những bức thông điệp đầy huyết lệ qua 100 năm(동경의숙 시문-100년 전 피와 눈물의 통첩들)」,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p.35.

44) Chương Thái, 앞의 책(2권), p.422.

과격함이 프랑스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응우옌 꾸엔의 애국시문 “국가 혼을 부른다(Kêu hồn nước)”와 판 보이 쩌우의 『월남망국사』, 『신월남』이 대표적이다. 반식민운동 과정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꼽히는 『월남망국사』는 베트남 최초의 혁명적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판 보이 쩌우는 응우옌 왕조의 무기력과 외세의 위협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한탄하면서 근왕 운동 시기 영웅들에 대해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억압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모든 계층으로 이루어진 민족적 반식민 전선의 결성을 촉구하기도 했다.⁴⁶⁾ 『신월남』 또한 1907년에 판 보이 쩌우가 저술한 책으로 문명화 이후 베트남이 맞이하게 될 10가지 기쁜 상황과 추구해야 할 6가지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10가지 기쁜 상황이란 프랑스 보호 권력이 사라지고, 부패한 관리가 사라지며, 실망한 백성들이 사라지고, 명예가 없는 군인이 사라지고, 불평등한 세금과 노동이 사라지며, 불평등한 법이 사라지고, 불완전한 교육 시스템이 사라지고,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산업을 경시하지 않으며, 상업 활동에서 뒤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6가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진보와 모험을 추구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문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애국심을 가지며, 도덕적이고,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2) 교외 계몽 활동: 신문발행과 신서번역

앞에서 살펴 본 교과서와 비공식 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경의숙은 교내 교육활동 외에도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외 계몽활동을 실시했다. 대표적인 활동이 신문발행과 신서번역 모임이다. 개명적 지식인들은 민지를 여는데 학교 교육만큼 언론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다. 19세기 후반까지 언론은 주로 프랑스 식민 정부의 통치 도구였기에 동경의숙의 언론 활용은

45) Vũ Ngọc Khánh, 앞의 글, p.54.

46) 유인선, 「방황하는 민족주의자, 판 보이 쩌우」, 『歷史教育』 90, 2004, pp.186~187.

획기적인 일이었다. 『월남망국사』는 당시의 언론 상황에 대해,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바보같이 취급하기 위해 2개의 신문을 만들어서, 프랑스의 보호를 찬양하는 내용만 등재한다고 비판했다.⁴⁷⁾

이처럼 프랑스 식민 정권은 식민 정책을 홍보하고 베트남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였다. 동경의숙 편찬반은 기존의 한자로 발행되던 『大南同文日報(Đại Nam đồng văn nhật báo)』를 인수하여 『등고총보』로 제호를 바꾸고 국어와 한문을 병기해서 발행하기 시작했다.⁴⁸⁾

동경의숙 관계자들은 동경의숙 설립 전부터 신문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 편집된 『문명신학책』에는 首都에서 반은 국어, 반은 한자로 된 신문을 발행하자는 내용이 있다. 효율적인 제도, 흥미로운 의견, 신기한 사건, 유럽과 미국의 앞선 기술, 책의 내용 중 모델이 될 만한 사건이나 말, 현재 문제에 관한 흥미로운 책이나 조사문,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재나 나라에 이익이 되는 신기술을 신문에 실어 알리자는 것이다. 신문발행은 민지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⁹⁾ 신문발행 배경에 대해서는 『등고총보』에서도 신문을 보지 않으면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문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양 문명국의 경우 10에 7-8할은 신문을 보지만, 베트남은 천 명 중에 한명만 글자를 알고, 글자를 아는 천 명 중에 한 명만 신문을 보기 때문에 문명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⁵⁰⁾ 신문발행을 문명국의 기준이며 민지가 열리는 첫걸음으로 보고,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국어로 된 신문 발행을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동경의숙과 『등고총보』의 관계를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한다. 꾸옥 아인(Quốc Anh)은 동경의숙은 진보유학자들의 애국 운동이지만 『등고총보』는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프랑스 식민 정권의 도구

47) 안명철·송엽휘 역주, 양계초 편저, 앞의 책, pp.78~79.

48) Nguyễn Lân Bình, 「Nguyễn Văn Vĩnh với Đông Kinh nghĩa thực(응우옌 빈과 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p.374.

49)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앞의 책, pp.189~190.

50) 『Đăng cổ tùng báo』 1907.4.18.(796)

였다고 평가하면서, 양자의 관련성을 부정했다.⁵¹⁾ 그러나 응우옌 타인(Nguyễn Thành)은 『등고총보』의 사장 슈나이더(F. H. Schneider)가 “이 신문은 자유 신문이다. 동경의숙의 성립과 신문의 출판은 서로 관련이 있다. 등고총보는 동경의숙의 정식 언론 기관이자 합법 기관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등고총보』는 동경의숙의 기관지였다고 평가했다.⁵²⁾ 또한 응우옌 투 장(Nguyễn Thu Giang)⁵³⁾과 응우옌 팡 응옥(Nguyễn Quang Ngọc)⁵⁴⁾은 동경의숙의 선전반이 『대남동문일보』의 관권을 사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남동문일보』는 『등고총보』로 제호를 바꿔서 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등고총보』에 보이는 일부 친프랑스 경향의 기사는 식민 정권의 신문 검열 시스템이 가혹했기 때문에 신문 발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필자는 『등고총보』를 동경의숙의 기관지였다고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동경의숙의 운영 시기와 『등고총보』의 발행·폐간 시기가 같다. 둘째, 『등고총보』의 주필이었던 응우옌 반 빈이 동경의숙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1906년 동경의숙 설립 준비 모임이 있을 때 응우옌 반 빈은 프랑스에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로 돌아온 직후부터 학교 설립 허가를 얻는 일을 도맡아서 처리했으며, 개교 이후에는 학교 운영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그는 프랑스어 수업을 맡은 교사였고, 한 달에 한번 있는 동경의숙 연설회의 대표적인 연설가였다.⁵⁵⁾ 셋째, 동경의숙의 교과서, 시문, 연설문이 『등고총보』에 꾸준히 연재되었으며, 동경의숙 연설회에서도 『등고총보』 기사 평론이 자주 주제로 올라왔다.⁵⁶⁾ 마지막으로 『등고총보』 사장 슈나이더는 분명히

51) Quốc Anh, 「Từ <Đại Nam Đông văn Nhật báo> đến <Đăng cổ Tùng báo>(〈대남동문일보〉부터 〈등고총보〉까지)」, 『Nghiên cứu Lịch sử』 5(164), 1975.

52) Nguyễn Thành,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Đại Nam(Đăng cổ Tùng báo)(동경의숙과 대남(등고총보))」, 『Nghiên cứu Lịch sử』 4(293), 1997, p.18.

53) Nguyễn Thu Giang, 「<Đăng cổ Tùng báo> trong bối cảnh Việt Nam đầu thế kỷ XX(20세기 초 베트남 배경 속에서의 <등고총보〉)」,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pp.23~30.

54) Nguyễn Quang Ngọc, 『Tiến trình lịch sử Việt Nam(베트남역사과정)』, Nxb Giáo dục, Hà Nội, 2000, p.244.

55) Neil L. Jamieson, 앞의 글, p.68.

“(대남동문일보)는 예전에는 관보였지만, 이제 자유로운 형식의 학교 신문(Một trường nhật-báo)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라고 했으며, 편집부는 “우리 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학교 신문(Một trường nhật-báo)을 만드는 일은 집을 짓는 일과도 같습니다. ...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책해주시고 칭찬해주신다면 우리 신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⁵⁷⁾

『등고총보』 1호는 동경의숙 개교 직후인 1907년 3월 28일 발행되었으며, 1907년 11월 14일까지 7개월 동안 총 34호의 신문이 발행되었다. 제호로 쓰인 한자는 “북을 친다”는 뜻인데, 제호에 대해 “등고총보의 뜻은 본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이 함께 문명의 세계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⁵⁸⁾

『등고총보』 1호는 『대남동문일보』 793호이기도 했는데, 이는 프랑스의 식민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1898년 프랑스 식민 정부는 인도차이나 출판에 관한 칙령을 발표하여 신문의 주필과 편집장을 프랑스인 혹은 프랑스 국적 소유의 외국인으로 한정시켰다.⁵⁹⁾ 『등고총보』의 사장 슈나이더는 프랑스인 공무원으로 32살에 베트남으로 건너와 1906년 응우옌 반 빈을 만났을 때는 인도차이나에서 24년째 거주 중이었다. 슈나이더는 프랑스 전권부와 인도차이나에서 각종 인쇄 사업을 한다는 계약을 맺고 북부 지방 최초의 관보 『대남동문일보』를 발행했다. 이는 일종의 公報로 한자를 사용했고 식민지 정부 기관과 군대에 배포했다. 그러나 슈나이더가 1907년 응우옌 반 빈과 함께 관보가 아닌 자유로운 신문을 국어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대남동문일보』는 『등고총보』라는 부제를 더하게 되고, 『대남동문일보』의 793호는 『등고총보』의 1호가 되었다.

『등고총보』은 국어 신문이었다. 개명적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국어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선교사들 사이에서 사용하던 국어를 프랑스 식민 당국이 베트남의 전통 문화를 부정하고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

56) Trương Hữu Quỳnh, 앞의 책, p.633.

57) 『Đăng cổ tùng báo』 1907.03.24.(등고총보 附章); 『Đăng cổ tùng báo』 1907.04.04.(794)

58) 『Đăng cổ tùng báo』 1907.4.18.(796)

59) 송정남, 『베트남 사회와 문화 들여다보기』, 후에북스, 2013, p.339.

화를 보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보급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츰 근대 지식의 전달 수단으로 국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동경의숙 때에 와서는 베트남어를 국민의 언어인 국어로 발전시키려고 했다.

개명적 지식인들이 국어 사용을 강조한 이유는 첫째,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 이 점은 외국어와 전통 시대 모국어인 쓰놈과 비교하여 더욱 강조되었다. 『문명신학책』은 국어는 보통 사람이면 몇 달이면 배울 수 있고, 여자와 어린이도 배울 수 있는 쉬운 언어라고 설명했다.⁶⁰⁾ 외국어는 몇 년을 배워도 효과가 없지만 국어는 배운지 6개월 만에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¹⁾ 『등고총보』는 쓰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히고 적히기 때문에 배우기 힘들지만, 국어는 25글자로 인쇄하기도 편리하고 배우기도 쉬워 유용한 언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어는 학습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민지를 여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둘째, 애국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명적 지식인들은 국어를 국어라고 부르고 국가의 혼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국어 사용을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⁶²⁾ 『신정국민독본』은 우리 문자를 잘 알고 전수하며, 외국어를 공부하더라도 국어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⁶³⁾ 『국문습독』은 국어를 나라의 혼이라고 했으며⁶⁴⁾, 『등고총보』는 “베트남 사람은 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기사에서 베트남인이란 국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⁶⁵⁾

셋째, 문명국의 기준이며 부국강병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문습독』은 자립을 이루고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⁶⁾ 『등고총보』도 문명국에는 독자적인 글과 말이 있으니, 국

60)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앞의 책, p.183.

61)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위의 책, p.190.

62) 『Đăng cổ tùng báo』 1907.3.28.(793)

63)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267.

64) Chương Thái,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 Nxb Hà Nội, 2010, p.566.

65) 『Đăng cổ tùng báo』 1907.3.28.(793)

66)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위의 책, p.567.

어 사용은 문명국을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했다.⁶⁷⁾

신문은 작은 종이(A4)에 인쇄되었고, 표지에는 4가지 신령한 생물인 봉황, 용, 기린, 거북이 문양이 있었다.⁶⁸⁾ 표지 한가운데는 “대남동문일보”, 오른쪽에는 “등고총보”, 왼쪽에는 “業惟勤, 志惟壹, 合力相助, 同心共濟”를 한자로 기재했다. 신문의 밑단에는 프랑스어와 한자로 발행 날짜와 발행 호수를 새겼고, 국어로 “한 호의 가격은 10 su”을 적었다. 신문의 홀수 면은 한문으로, 짝수 면은 국어로 작성하였다. 기사 배열 방식은 아주 단순하게 2부분으로 나뉘어서 다른 기사로 연결되는 기사라 할지라도 계속 페이지가 이어지지 않는 구조였다. 총 16쪽이며, 사설, 리뷰, 북부 지방의 뉴스, 세계 뉴스(“세계 전보”), 과학·시, 외국 작품의 번역문 등을 소개하고 “여성의 말”, “시, 부, 가요집” 같은 연재물도 있었다.



『등고총보』 표지 1907.03.28.(793)출처: <http://www.votruongtoan.org/vttorg/index.php?menu=8&ref=11876>

“세계전보”에는 아시아(중국, 홍콩,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 페르시아), 아프리카(남아프리카, 모로코), 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멕시코,

67) 『Đăng cổ tùng báo』 1907.3.28.(793)

68) Đỗ Quang Hùng, 『Lịch sử báo chí Việt Nam 1865 - 1945(베트남 언론사 1865-1945)』, Hà Nội: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2001, p.45.

파나마), 유럽(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에스파냐, 루마니아, 터키, 러시아), 북극 소식이 실렸다. 주로 국가 간의 협약과 전쟁, 사고, 식민지 점령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한국은 高麗라고 불리며 총 3번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선 사절단의 만국회의 참석 불가와 미국 방문으로, 별도의 “소문” 칸에서는 조선 황제가 포츠머스 조약 이후 일본의 보호국화를 약속을 했다는 소문이 있음을 언급했다.⁶⁹⁾ 또 조선 황제가 군대 해산 명령을 내리자 내란이 일어나 조선인 4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음을 알리며, 항간에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생각이 없으며 단지 조선 정부를 입헌국가로 바꿀 생각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⁷⁰⁾ 마지막으로 부산-서울 열차가 전복하여 일본인 25명, 조선인 9명이 다치고, 조선인 3명이 목숨을 잃었음을 알렸다.⁷¹⁾

“하노이소식”에는 동경의숙 소식과 기타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소식, 하노이에 소재한 상점, 학회, 연설 소식이 실렸다. “지방소식”에는 하노이를 제외한 지방 소식을 실었는데 남부 지역 소식도 있었다. 하노이에 지부를 둔 신문이지만 베트남 전체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다. “신문사알림”에는 신문사 사정이나 독자 편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신문사의 입장을 실었고, “광고, 고백”에는 상업 광고를 실었다. “여성의 말”은 여성 독자를 위한 연재 칼럼으로 20회 이상 이어졌다. 여성 교육, 정략결혼, 결혼 지참금 문제, 일부다처제, 미신, 자유연애, 남성의 여성 희롱 등 여성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루었으며, 편집인 응우옌 반 빈이 여성 가명(다오 티 로안, Đào Thị Loan)을 빌려 기사를 썼다. 사설 역시 편집인 응우옌 반 빈이 썼으며, 대부분 구습을 비판하고 근대 사상과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긴 사설의 경우 몇 회로 나눠서 실기도 했다.

동경의숙의 교외 계몽활동에는 신문발행 외에도 신서보급 및 번역운동이 있었다. 신서 읽기 역시 민지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 전체를 대

69) 『Đăng cổ tùng báo』 1907.08.01.(811)

70) 『Đăng cổ tùng báo』 1907.08.08.(812)

71) 『Đăng cổ tùng báo』 1907.10.17.(822)

상으로 한 교외 교육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신서와 신문은 지식을 깨치고 문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강조되었는데, 신문·신서읽기모임이 조직될 정도였다. 『등고총보』는 신문·신서읽기회를 소개하며, 베트남에서 단체 조직이 느린 것은 민지가 열리지 않아 민이 어리석고 어두운 세계에 살기 때문인데, 민지를 열고 싶으면 신문과 신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 마을의 모임을 소개하고, 신문을 읽어 지식이 열리고 신서를 읽어 새로운 생각을 하여 문명을 이루자고 주장했다.⁷²⁾

동경의숙은 외부인들도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개방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었다.⁷³⁾ 그러나 당시 근대 사상을 소개하는 서구와 일본의 책들은 중국어로 번역된 후에야 베트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신서의 종류와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서번역회를 조직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국어로 번역하여 민지 확장을 돕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등고총보』에는 신서번역회와 관련하여 1907년 8월 1일 810호부터 1907년 10월 3일 820호까지 총 8회 기사가 있다. 810호에서는 곧 있을 신서번역회(Hội dịch sách)의 창간 소식을 알리고, 창간 취지와 함께 11명의 발기인 이름을 제시했다.⁷⁴⁾ 회원은 編輯(biên tập) 회원, 場譯(chợ dịch) 회원, 贊成(tán thành) 회원으로 구분되었다. 창간 모임이 있고 난 후에는 창간 모임이 있던 날의 소식을 자세히 알렸다. 창간 모임에 300여명이 참석하여, 관료 도 반 땀(Đỗ Văn Tâm)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단체 규칙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회원 가입 현황도 알렸는데, 지금까지 148명이 찬성회원, 120명이 장역회원, 13명이 편집회원으로 등록했으며, 다음달(9월) 1일까지 회원 가입을 받는다고 했다.⁷⁵⁾ 번역회는 1,000명의 회원을 모아 매달 120장 분량의 책 한권을 번역하고 인쇄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겠다는 활동 계획을 세웠다. 만일 가입한 회원 수가 1,000명이 되

72) 『Đăng cổ tùng báo』 1907.7.18.(809)

73) David G Marr, 앞의 책, p.171.

74) 교육자가 6명(동경의숙 교장, 타이 하(Thái hà) 학교장, 智知會 학교장, 사범학교장, 후보학교장, 智知會 보좌관), 신문 편집인이 2명(大越新報, 등고총보), 관료 3명(대학사, 하노이 독립부 통관, 하노이 시의원)이었다.

75) 『Đăng cổ tùng báo』 1907.08.08.(812)

지 않으면 번역문의 탁본을 내놓되 인쇄는 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번역하는 책의 종류는 중국과 프랑스의 책 가운데 자연과학, 박물, 화학, 수학, 기계학, 상업 분야에서 수준이 너무 높지 않은 책과 유교 전서(sách nho)를 먼저 실제에 맞게 번역하고, 경제학, 정치학 분야의 수준 높은 책은 가끔 번역할 것이라고 했다.⁷⁶⁾ 회원 모집이 마감된 후에는 총 400명이 신청서를 냈음을 알렸다. 식민 정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했고,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를 대신하여 베트남인의 학습을 돕는 단체라는 것이다.⁷⁷⁾

이상과 같이 동경의숙 관계자들은 『등고총보』를 이용하여 신서번역회 활동을 널리 알렸다. 신서번역회가 실제로 번역한 책과 이후의 활동은 『등고총보』의 폐간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등고총보』 796호부터 총 11번 연재된 “신서소개”에는 『등고총보』 사장 슈나이더가 소유한 인쇄소에서 번역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기초적인 프랑스문학 이해를 위한 책과 중국 문학책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⁸⁾

이와 같이 신서번역회는 400여 명의 지식인들이 참가하여 국민 전체의 민지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신문발행과 함께 동경의숙의 중요한 교외 계몽활동이었다. 이렇게 번역된 신서는 당시 베트남 사회에 강한 영향을 끼쳤는데, 일본의 명치유신, 중국의 무술개혁과 이후의 개혁운동, 러일전쟁의 “승리”에 고무된 베트남의 마지막 사대부 세대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20세기 초에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모된 “신서”로부터 영감과 착상을 얻어 “구학”을 비판하고 “신학”을 찬양하면서” 베트남 개혁운동가로서의 삶에 투신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1904년 유신회의 조직, 1905년 이래 동유운동의 전개, 그리고 1907년 동경의숙의 성립 등과 같은 일련의 베트남 개혁운동의 근간에는 “신서”가 발휘한 知的動力的 社會化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⁷⁹⁾

76) 『Đăng cổ tùng báo』 1907.08.15.(813); 『Đăng cổ tùng báo』 1907.08.22.(814)

77) 『Đăng cổ tùng báo』 1907.09.12.(817)

78) “신서소개” 코너에서 소개된 책으로는 『海陸格言』, 『秋夜旅懷吟』, 『佛學捷解』, 『신편필수어휘(프랑스어)』가 있다.

79) 윤대영, 앞의 글(2011), pp.391~392.

4. 義塾의 국민 양성론

1) 입헌군주제 구상 속의 국민자격론

동경의숙과 그 관계자들은 입헌군주제 형태의 근대국가를 추구하였다. 이는 군주제 전통 하에서 당시 이른바 근대문명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입헌제를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동경의숙은 “문명”과 “문명화”를 매우 중시하였고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문명화를 이루고자 했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문명은, 위기에 처한 개별사회가 집단적 주체인 “국민”을 창출하여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국가를 세워나가기 위한 목표이자 방편이었으며, 근대 국가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기준이었다. 즉 국제관계 속에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은 다른 근대적 국민국가와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는 것을 뜻했고, 그 원리가 바로 “보편적인 문명”이었다.⁸⁰⁾

개명적 지식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지도자 역할을 맡아 일으켰던 근왕운동과 같은 프랑스 정복자들에 대한 지식 유학자들의 저항의 실패는 유교주의 원리에 따른 행동이 프랑스 지배와 그들이 말하는 “망국”, “민족멸망”을 일으키는 위기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님을 증명했다. 베트남 사회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물결을 설명하기 위해, 개혁 세대들은 점점 자신의 전통 밖으로 나가서 서양 유럽과 미국의 문명을 보게 된다. 개혁운동가들이 가장 뛰어난 문명 사상가로 생각한 사람은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였다. 개명적 지식인에게 스펜서의 사회 다위니즘 이론은 전통 사회가 무력하여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된 상황을 강력하게 설명해주었다.⁸¹⁾

80) 백영서, 「20세기형 동아시아 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 『창작과 비평』 27(4), 1999, p.11.

81) Mark Philip Bradley, “Becoming Van Minh: Civilizational Discourse and Visions of the Self in Twentieth-Century Vietnam”, *Journal of World History*, Vol.15, No.1, 2004, pp.68~69.

개명적 지식인들은 프랑스가 문명국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고, 베트남도 문명국이 된다면 독립 회복은 물론 백인종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⁸²⁾ 그러므로 동경의숙의 교과서와 신문은 문명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였고, 교육으로 문명화의 일을 담당하는 국민을 먼저 기르려고 했다.

동경의숙 관계자들은 문명을 “명성(美名)”으로, 文字, 法律, 教育, 倫理, 耕耨, 製造를 아울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문명 이전은 野蠻이고, 야만은 개화를 통해 문명이 된다고 했다. 문명 이후에는 進歩의 속도나 程度의 높이에 따라 거칠거나 단순한 문명, 세련된 문명으로 구분하였다. 문명에는 한계가 없어서 완벽한 문명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⁸³⁾ 또한 문명과 민지를 因果관계로 파악하고, 민지의 상태에 따라 野蠻, 半開, 文明으로 구분하고 문명을 다시 정적인 문명과 동적인 문명으로 구분하기도 했다.⁸⁴⁾

동경의숙 관계자들은 베트남 또한 아주 오래 전에 개화한 문명국이라고 보았다.⁸⁵⁾ 그렇다면 문명국인 베트남이 또 다른 문명국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베트남이 옛것만 추구하며 정적인 상태를 고집하다 유럽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⁸⁶⁾ 그러므로 문명의 정도를 높여야 독립할 수 있다고 여긴 동경의숙 관계자들은 프랑스(유럽), 일본, 중국을 모델로 삼고 문명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다. 이들의 국민국가 구상은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는 “국민 형성” 내셔널리즘과 관료·군대 등 국가기구 자체의 강화에 치중하는 “국가 형성” 내셔널리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⁸⁷⁾

82) 『신정국민독본』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진취성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면 백인 세계가 황인의 세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문명신학책』에서는 “황인종인 우리가 백인종에 뒤질 이유가 없다”(p.182), 『신월남』에서는 “황인종의 힘을 기르기 위해 적을 죽일 것을 각오해야 한다. 프랑스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종이 승리할 것이다”(p.107)고 했다.

83)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p.261~262.

84)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앞의 책, p.177.

85)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60.

86)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위의 책, p.179;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261; 안명철·송엽희 역주, 양계초 편저, 앞의 책, pp.31~32.

그러면,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과 프랑스·일본·중국의 영향 하에 어떻게 자신들만의 근대 국민국가 구상을 제시하고자 했을까.

동경의숙 구성원들이 국가를 보는 시각은 전통 사상이나 근대 내셔널리즘이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전제군주 체제와 프랑스 보호령을 부정하고 애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전제군주 체제 때문에 “백성은 꼭두각시가 되고 나라가 약해졌으며”⁸⁸⁾, “외국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⁸⁹⁾고 주장했고, 프랑스 보호령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훔쳤”⁹⁰⁾으며 “보호라는 두 글자로 온 오대주 강국의 눈을 속이고”,⁹¹⁾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뜻이 전혀 없이 모든 권리를 차지”⁹²⁾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주권 회복 이후 수립할 이상적인 국가 체제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입헌군주제는 국민이 왕을 존경하고 주인으로 삼더라도 왕의 권한을 제한하여 의회에서 국가대사를 토론하는 체제라고 설명하고, 민지가 열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왕에게만 권력이 있는 정치 체도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입헌제를 실시하는데, 일본이 전제제에서 입헌제로 바뀌는 과정과 입헌제의 특징을 소개하여 입헌제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시켜 주었다.⁹³⁾ 관 보이 씨우가 만든 유신회도 성립 초기부터 전제군주제를 비판하고 입헌군주제의 원칙을 지지하였다.⁹⁴⁾

그러나 입헌군주체제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기존의 전제군주를 애국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입헌군주제로의 체제 변화를 주장하였

87) 최갑수,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근대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88) Chương Thâu,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Đông Kinh Nghĩa Thự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 Nxb Hà Nội, 2010, p.14.

89)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p.274~275.

90)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09.

91) 안명철·송엽휘 역주, 양계초 편저, 앞의 책, p.56.

92) 안명철·송엽휘 역주, 양계초 편저, 위의 책 p.61.

93)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p.274~275.

94) Nhóm Nhân văn trẻ, 『Hỏi đáp lịch sử việt nam(베트남 역사 문답)』 5, Nxb Trẻ Tp. Hồ Chí Minh, 2013, p.28.

다. 즉, 기존의 베트남 왕조를 그대로 인정하여 군주를 애국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현재는 없지만 독립 이후 건설할 새로운 입헌군주체제 또한 애국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명목상이나마 통킹과 안남 지역에 응우옌 왕조와 그 행정기구가 남아 있었고, 군주제 전통이 강한 조건이었던 만큼 군주제를 폐지하는 입헌공화제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되 입헌제를 도입하는 입헌군주제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었을 것이다.⁹⁵⁾ 『등고총보』의 「황제는 여전히 황제이다」는 기사는 군주제 전통을 잘 보여주는데, “황제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프랑스 식민 정부도 베트남 황제를 폐위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군주제는 계속, 영원히 존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⁹⁶⁾ 또한 동경의숙 관계자들은 민지의 확장을 우선하였기에, 민지 확장 후에 민권을 신장할 수 있고 공화정체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공화정체는 미래의 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 내셔널리즘에서 나온 국민국가 구상은 명확한 정치 계획이나 모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초기 내셔널리즘이 중국이나 조선과는 달리 완전히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⁹⁷⁾ 삼엄한 식민 정부의 감시 아래 구체적인 정권론은 전개될 수 없었고, 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국민의 자격을 갖춘 인간이 있어야 문명화를 이루며, 근대 국가도 수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국민의 자격을 갖춘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 국민은 전근대 시대 왕조 국가에서 왕의 신하로서 일체성을 갖는 臣民과는 다른 개념이었다. 국민은 서구 근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근대적 개념으로, 국민 국가의 구성원이며,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독립적인 인간을 의미하였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유신운동에서 국민이란 말이 처음 나왔고, 국민의 창출과 국민국가 구상도 처음 제시되었다.⁹⁸⁾

95) 유용태·박진우·박태균, 『함께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창비, 2010, p.206.

96) 『Đăng cổ tùng báo』 1907.8.22.(814)

97) 今井昭夫, 앞의 글, p.155.

98) 今井昭夫, 위의 곳.

교과서는 국민을 혈연, 언어, 지역 등으로 구분했다. 먼저 국민은 공통 조상을 가지는 자손들의 집합으로 동포라고 보았다. 『신정윤리교과서』는 같은 시조를 갖는 한 종족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하나의 단체로 모여서, 시조의 공로와 덕과 도량에 복종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혈통 단결이라고 설명했다. 동포는 피를 나눈 형제이므로 단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이 흥방 때에 나라를 세운 이후 이민족인 만족과 농족도 베트남의 도의를 경애하여 귀순하였고, 지금은 같은 혈통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소수 민족도 같은 혈연임을 강조했다.⁹⁹⁾ 『국문습독』에서도 베트남은 세상에 한 민족으로 태어나 4천년이 넘도록 하나의 나라를 지켜왔다고 설명하면서, 같은 조상을 갖는 형과 동생이 모여 한 일가를 이룬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동종동포임을 강조하고, 어떻게든 내외가 합심하여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⁰⁾ 『신정국민독본』도 수 천 만의 가족이 공익을 위해 스스로 국가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부부가 가족을 만들고, 가족이 族群을 만들고, 族이 民群을 만들고, 民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민은 기본적으로 같은 혈통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¹⁰¹⁾

언어에 의한 국민 구분은 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문습독』은 국어는 국가의 혼이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어인 베트남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²⁾ 하나의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연성을 강조하여 당시 베트남 국경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산하와 역사를 공유하는 베트남 국민이라고 보기도 하였다.¹⁰³⁾ 이는 프랑스 식민지하에 놓이게 되어 잃어버린 자립과 통킹, 안남, 코친차이나로 분리된 상황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베트남(응우옌 왕조의 판도를 기준으로)으로 국가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다.¹⁰⁴⁾

99)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11.

100)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앞의 책, p.570.

101)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253.

102)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앞의 책, pp.566~567.

103) 今井昭夫, 앞의 글, pp.164~165.

104) 후루타 모토오, 『베트남의 세계사』, 개신, 2008, p.57.

이와 같이 국민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혈연이나 언어,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국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국민의 자격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국민교육이라고 했다. 『신정국민독본』은 “국가와 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와 직분을 알게 하며, 애국심과 愛群心을 기르고 자치 능력과 자립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국민교육”이라고 설명했다.¹⁰⁵⁾ 『신정윤리교과서』는 국민교육은 풍속, 관습, 역사, 정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며, 베트남은 국민의 자격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베트남의 기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⁶⁾ 즉, 국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베트남식 국민교육의 실시를 주장한 것이다.

국민교육은 제도적으로는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을 주장하였다. 『신월남』은 재산,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빠르면 5살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통교육을 주장하였다. 교육에 드는 비용은 조정이나 사회가 부담하여 가난한 이들도 최소한 초등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실시를 함께 언급하였다.¹⁰⁷⁾ 『신정국민독본』은 문명화하는 한 사람의 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통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은 본래 정도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동등하게 교육시켜 문명 진보를 위해 일하도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보급교육을 주장했는데, 보급교육이란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을 배우러 가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즉, 보통교육과 의무교육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급교육을 사용한 것이다. 보급교육은 소학교부터 실시해야 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계급·계층 분화를 막고 국민 모두가 국가의 계획을 이해하게 만들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존재임을 알려주는 인간다움의 기준이며, 마을의 번영과 국가의 문명을 결정짓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예를 들어 문명국은 보급교육을 실시하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고 재차 비판하

105)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51.

106)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17.

107)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13.

였다.¹⁰⁸⁾ 『신정윤리교과서』는 교육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했다. 자녀를 사랑하다면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여, 교육의 일을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愚賢이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자녀 교육을 국가에 대한 의무로 보기도 했다. 도덕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을 국가에 대한 의무로 봤다는 점에서 보통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¹⁰⁹⁾ 『등고총보』도 보통교육을 받아야 자신의 의무를 알게 되고, 권리를 지키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문명화와 부강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¹¹⁰⁾

국민교육은 내용면에서는 실업교육, 도덕교육, 위생·체육교육을 강조하였다. 『신정국민독본』은 나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배워야 하는데, 반드시 다음 3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생을 배워 신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방법-요리하고 옷을 만들고 산업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며, 인간이 되고 국민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¹¹¹⁾ 『신월남』에서는 도덕교육과 체육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²⁾ 『신정윤리교과서』는 배우는 순서에 대해 “먼저 신체가 건강하도록 위생을 지키고, 지혜를 가꾸며, 마지막으로 도덕을 연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¹¹³⁾

국민의 자격 유무는 국민과 신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신정국민독본』은 신민은 백성과 같은 의미로 일반적인 호칭이고, 국민은 이와는 달리 특별한 호칭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기준은 국가를 대하는 개인의 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여 국가의 발전을 돕고, 법률을 준수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나라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국가 안위와 나라 정사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방관하지 않을 때, 국민의

108)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p.282~283.

109)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17.

110) 『Đăng cổ tùng báo』 1907.10.10.(821)

111)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p.283~284.

112)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13.

113)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위의 책, p.24.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국가 의식이 없고 국가가 혼란스럽든 약하든 알지 못하고 적에게 빌붙어 노예생활을 하거나, 국가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라일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여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모르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¹¹⁴⁾

국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명국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신정국민독본』은 국민이 국가의 일을 방관하지 않는 것은 문명국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문명국이라면 국민들이 나라의 일을 자신의 집안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¹¹⁵⁾ 『문명신학책』에서는 유럽과 베트남을 비교하여 유럽은 국가와 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공동 소유물이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¹¹⁶⁾ 『신정윤리교과서』는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사회의 쇠락과 번영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도 민기가 기운찬 적이 없었고 그래서 나라는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세계 생존 경쟁에서 국가를 보호하고 싶다면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¹¹⁷⁾ 『신정국민독본』에서도 국가의 몸은 국민이므로, 국민이 강해야 국가가 번영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는 스스로 강하거나 약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¹¹⁸⁾

또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국가를 잃었다고 보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주장하였다. 『월남망국사』는 나라의 문무 관리들이 국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향락과 안일만 추구하여 그간에 썩은 정사가 점점 쌓였다고 했다. 이 가운데 제일 비열한 자는 백성들이 말도 못하게 압제하여, 나라일 의논에 백성들은 탄식만 할 뿐이라고 했다. 만일 베트남이 군정을 닦고 민권을 일으켜 군신상하가 정

114)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p.263~264.

115)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63.

116)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앞의 책, p.181.

117)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위의 책, p.14.

118)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266.

신을 차리고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였다면 나라일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¹¹⁹⁾ 『신정국민독본』도 국가의 쇠약은 운명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정사와 무능한 국민 탓이라고 하여, 존군경민의 태도가 베트남을 쇠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¹²⁰⁾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따랐다. 개명적 지식인들은 민지의 확장을 민권의 전제로 봤기 때문에, 당시 논의된 민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이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았고,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국가에 종속된 모습이었다. 이는 국민 자체에 주목하여 인권의 실현을 위해 민권을 제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민권을 제창했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가를 운명 공동체로 묶어 국민이 강하면 국가도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생존 경쟁의 주체를 국가로 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 내지 권리를 위해 국민 개인의 권리나 이익은 제약되고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 국가의 문명화와 국권 회복이 우선이었고, 민권은 식민지 국가를 벗어난 이후 독립 국가에서 민지가 확장된 후에 논의할 것이었다. 『등고총보』는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교육을 통해 먼저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¹⁾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교육권, 고소권, 납세 의무, 병역 의무, 법률 준수 의무를 국민의 자격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신정윤리교과서』는 교육권을 “부모의 일반적인 사랑이자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법률 준수 의무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첫 번째 의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민이 법률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민지 정도에 따라 다르다. 문명국의 국민과만 법률을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률 준수 의무는 문명국이 된 후에 지킬 수 있는 미래 의무로 설정한 것이다. 병역 의무는 “국가가 평안하길 바란다면 국민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은 즐겁게 납세하여 본분을 지켜야 한다. 법률로 정해진 일상적인 세금

119) 안명철·송엽희 역주, 양계초 편저, 앞의 책, pp.34~35.

120)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73.

121) 『Đăng cổ tùng báo』 1907.04.11.(795)

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별히 매겨진 세금의 경우 국민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¹²²⁾ 『신정국민독본』도 법률 준수와 납세의 일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알만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법률이 일단 정해지면 따라야지 법률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어겨서는 안 된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법률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일을 해결 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는 과세권이 있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권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은 고소를 할 수 있고, 국가는 보호해 줄 책임이 있으니 이것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설명했다.¹²³⁾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참정권은 소극적인 참정권과 적극적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나누어졌다. 소극적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정치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적극적인 참정권은 선거권을 포함하여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극적인 참정권은 『신정국민독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정국민독본』은 “서양의 국민들은 정사를 반박할 권리가 있으니 이를 정치권이라고 한다. 국가를 배신한 사람에게는 정치권을 빼앗고 더 이상 국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베트남인들에게는 정치권이 없다. 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다. 본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국가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긴다면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¹²⁴⁾고 하여 “우리 국민들은 비록 정치를 의논할 책임은 없지만 국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치의 의의를 몰라서는 안된다”며 소극적인 참정권을 주장하였다.¹²⁵⁾

적극적인 참정권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었다. 『신정국민독본』은 “문명국은 민지가 개화되어 국민은 나라 일에 참가할 의식을 가진다. 또한 국민들은 의원이 되어 나라 일을 토론할 능력이 가지며, 지방 정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세울 능력을 가

122)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p.15~17.

123)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p.291~292.

124)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264.

125)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81.

진다”고 했다.¹²⁶⁾ 『문명신학책』은 유럽인들은 정권을 조직하고 의원을 선출하고, 무슨 일이든 시행하기 전에 회의를 열어 아침에 고친 것이라도 진리와 상황에 맞게 오후에 다시 고치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¹²⁷⁾ 『신월남』은 “문명화 이후 국가의 운명은 인민의 손에 달리게 된다. 수도 한 가운데 의회를 세워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인민이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신분,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며, 정치 체제를 결정할 무한한 권리를 가질 것이다. 통치자의 잘못이나 관료의 권력남용 등 공의에 따르지 않은 행동은 의회에서 국민의 대리자들에 의해 처벌받거나 질책 받을 것”이라고 했다.¹²⁸⁾

선거권을 포함한 적극적인 참정권을 미래 권리로 간주했지만, 프랑스의 식민 지배 하에서 제한적인 선거권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 『신정국민독본』은 “의원 선거는 국가가 새롭게 관리하는 일이다. 국가는 법률로 국민에게 정사를 반론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결정하는 선거권을 보장했다. 국민들은 국가의 요구에 응답하여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고총보』는 의원 선거 일정을 알리고, 선거를 독려하는 글이 기사로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하노이 시의원 선거는 16명의 시의원 중 4명의 베트남인 의원을 뽑는 선거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고 세금을 15동 이상 내는 21세 이상의 남자에 제한되었다. 피선거권 또한 똑똑하거나 큰 장사를 하거나 재산이 많은 27세 이상의 남성에게 한정하였다. 게다가 시의원 선거는 3년에 한번 실시되었으므로 실제로 선거권을 가진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기회는 드물었다.¹²⁹⁾ 또한 식민 정권의 감시와 조정 아래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의회는 실질적인 힘이 없었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은 베트남 인민들을 대변하지 못했고, 식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그러므로 식민 지배를 받는 베트남에서 선거권을

126)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80.

127)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앞의 책, pp.180~181.

128)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08.

129) 『Đăng cổ tùng báo』 1907.4.25.(797)

포함한 적극적인 참정권은 미래의 권리로 간주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자격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교육관은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보다는 개인의 인성과 소양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정국민독본』은 “구습을 바꾸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번 얘기한 이유는 정치 변화의 기초가 되도록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의 성격과 풍속을 바꾸는 일은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¹³⁰⁾ 국민의 자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감 가지기, 정치와 법률의 의의 알기, 법률 준수와 납세·병역 의무 다하기는 개인의 성격과 습관을 바꾸면 될 것이고, 참정권과 같은 적극적인 민권은 국민의 자격을 갖춘 후에 누리게 될 것이므로, 국민교육을 통한 개인의 인성 변화를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교육을 통해 기르려고 했던 국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 애국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 애국적 인간 양성 교육관의 특징은 프랑스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인 요구였다는 점이다. 국권이 빼앗기는 것을 목도한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베트남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망국을 인식하고 민족 멸망의 위기를 인식한 그들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교과서는 애국심 권려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¹⁾ “베트남은 4천 년 전부터 역사가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 적은 결코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면 “존왕애국 정신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이다.¹³²⁾

또한 경쟁 단위를 국가로 보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애국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¹³³⁾ 문명국 건설에 필요한 애국 인간을 먼저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130)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282.

131)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14.

132)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15.

133) Mark Philip Bradley, 앞의 글, p.69.

것은 존왕애국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¹³⁴⁾ “충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부강”해지므로, “국민교육은 국민에게 충의로움과 과감함을 배양”해야 했다.¹³⁵⁾

이러한 애국심의 강조는 오랜 외침에 저항해 온 베트남 역사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사상이기도 했다. 중국의 오랜 지배와 잦은 침입에 대항하여 향촌 공동체를 지킨 역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배양했다. 동경의숙 구성원들이 주장한 애국심은 효와 충을 분리하지 않고, 효와 충을 윤리의 기본으로 보며, 충은 왕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희생을 모두 의미했던 전통 유교 윤리 사상과 닮아있었다. 교과서에서 충의로움은 애국심으로 표현이 바뀌었지만, 의미는 결코 다르지 않았다. 애국은 여전히 충의로움, 존왕애국을 의미했고, 충과 효는 분리되지 않았다.

『신정국민독본』은 “충의로운 국민은 왕이 영토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국가에 외침이 생기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도망가는 사람은 불충하고 불의하며 큰 창피를 입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은 없으며 죽어도 부모가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¹³⁶⁾ 『신정윤리교과서』는 “충과 효는 하나이지 둘로 나뉘지 않는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효 중에서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살신성인은 大孝이다. 완전한 효도란 안으로는 지혜를 기르고 덕을 쌓고 가정의 번영을 위해 힘쓰며 밖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와 다시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일이다. 충과 효는 100년 품행의 근본이자 수만 가지 좋은 것의 기준이다. 매일의 모든 일이 충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나라의 번영과 쇠락, 사회의 진보와 낙후, 개인과 가족의 명예와 불명예까지도 충효에 달려있다”고 했다.¹³⁷⁾

134)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위의 책, p.14.

135)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51.

136)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68.

137)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p.12~13.

이렇듯 교육을 통해 애국적인 인간을 기르려고 한 것은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였지만, 애국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다. 동경의숙에서 애국은 무력을 통한 즉각적인 독립 쟁취 방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 안에서 실력을 갖추서 후일을 도모하는 개량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추구했다. 이는 동경의숙이 식민 초기 항불 무장 투쟁이 실패하면서 나온 합법적이고 개량적인 교육개혁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동경의숙 안에는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강조하는 세력도 있었다. 그들은 동경의숙에 근대과목으로 체육교육이 설치되자 이를 학생들에게 복싱과 무기 사용을 훈련시키는 발판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혁명 투쟁을 강조하는 세력은 동경의숙 내에서도 소수였다.¹³⁸⁾ 혁명 투쟁을 주장하는 일은 프랑스 식민 정부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동경의숙에서 주장한 애국은 주로 학생 개인의 도덕성 수양인 애국심 고양을 의미했다. 주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애국적 소양을 가진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애국이란 국가가 위기에 빠져 약해졌을 때 국가의 영광을 기원하고, 국가의 일이 힘들더라도 꺼리지 않으며 비록 집이 파산하더라도 감내하는 마음을 이르며,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며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는 마음이며, 어디에 있든 서로 사랑하고 성심으로 선조들을 명예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¹³⁹⁾

애국 행동으로 제시한 것도 어디까지나 개량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진정한 애국은 행동으로 증명해야지, 행동하지 않고 말만하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도, 프랑스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권하지 않았다.¹⁴⁰⁾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세력 확장을 돕는 용기를 갖고, 자립정신을 기르며, 재능과 잠재성을 발휘하여 한 톨의 자원도 낭비하지 않으며, 진취적인 정신과 자강 정신을 가지고, 윤상도리 가운데 좋은 것을 보존하고, 국어를 배우라고 하면서 개량적인

138) Vũ Đức Bằng, 앞의 글, pp.73~75.

139)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앞의 책, pp.568~569.

140)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21.

방식을 제시하였다.¹⁴¹⁾

애국적인 인간은 주권 회복이라는 현실적인 요구 외에도 국가 번영과 사회 진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국민의 자격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으며, 나아가 인간의 본성이며, 길러야 할 도덕적 소양이며, 지켜야 할 법률이라고도 했다. 『신월남』은 모든 교과서는 애국심을 권려하고,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배양하고, 민지를 열고, 민권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매일 천 걸음 씩 진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²⁾ 『신정국민독본』은 충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괴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¹⁴³⁾ 『신정윤리교과서』는 문명국이 되기 위해 존왕애국 정신이 필요하며, 충은 매일의 모든 일, 나라의 번영과 쇠락, 사회의 진보와 낙후, 개인과 가족의 명예와 불명예까지 모두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와 충은 하나로, 중요한 도덕일 뿐만 아니라 강화해야 할 법률이기 때문에, 도덕적 법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했다.¹⁴⁴⁾ 『국문습독』은 “한밤중에 꾸는 꿈에서도 애국심이 달라지지 않으니, 어디에 있든지 애국심이 있어야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여 애국심을 국민의 기본 소양으로 보았다.¹⁴⁵⁾

애국심을 배양하는 대상에는 성별이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동경의숙의 교육대상에 남녀노소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개명적 지식인들에게 부족했던 현실 인식은 주권 회복 이후 설립할 국가에 대한 계획 부재로 나타났고, 그 결과 애국심 고양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 프랑스 식민 정부가 인도차이나라는 하나의 연방으로 묶은 라오스인과 캄보디아인들을 포함할 것인지, 산악 민족을 포함한 50여개가 넘는 소수민족을 포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주권 회복 후 설립할 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달라질 것이었다.

141)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267.

142) 「The New Vietnam(신월남)」, 위의 책, p.114.

143)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266.

144)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위의 책, p.20.

145)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위의 책, p.569.

두 번째로 동경의숙은 국민교육을 통해 愛群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 애군하는 인간 양성 교육관은 중국 근대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동경의숙 교과서에서 애군은 흔히 合群, 合團과 混用되었다. 합군론은 중국에서 1895년에 처음 제기되었고 변법파가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각종 단체를 결성하는 합군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¹⁴⁶⁾ 중국의 합군론은 베트남에서는 주로 愛群으로 소개되어 구국의 방법으로 널리 퍼졌다. 愛群은 베트남 역사에서 유래한 전통 사상이기도 했다. 『신정국민독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애군이 생긴다고 설명하면서,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가족, 이웃, 소집단끼리 모이기를 잘해왔다고 설명했다.¹⁴⁷⁾ 베트남은 전통시대부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단결과 상부상조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단체를 조직했다. 동족관계이거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거나 제사와 같은 신앙관계 등으로 조직된 甲, 한 지역에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조직한 坊,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상부상조할 목적으로 만든 百藝會 등 여러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근대적인 합군론이 도입되자 전통 사상에 기반하여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애군론은 중국에서와 같이 합군을 잘 할수록 진보한다는 善群進化論의 믿음 하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 필요에서 나왔다. 관직에 실망하고 과거의 방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주권 회복과 조국의 문명화를 이루는데 민의를 모으고 민심을 결집하기 위한 교육단체, 상회, 공회, 여성회, 독립운동단체 등의 근대적 단체 결성과 愛群적인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체가 있어야 우리가 있으니, 단체는 중요하며 우리는 미천하다. 단체의 이익이 안전하면 우리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고 했다.¹⁴⁸⁾ “단결하지 않으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으므로”, “합단해서 지식과 자원을 모아 생사의 길을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¹⁴⁹⁾ 단체를

146) 유용태, 「近代中國의 職業團體와 民意形成, 1901-1919」, 『東洋史學研究』 101, 東洋史學會, 2007, p.253.

147)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254.

148)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앞의 책, p.571.

149)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20.

연합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했다.¹⁵⁰⁾ “범인들은 서로 단결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⁵¹⁾ “문명화의 길”을 따르기 위해 합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¹⁵²⁾

단체는 마을 단위, 직업 단위, 국가 단위 등 여러 단위로 형성할 수 있었지만, 애군의 대상으로 삼은 단위는 국가 사회 단위였다. 『신정국민독본』은 사회의 團結之力の 厚薄은 애군심의 厚薄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¹⁵³⁾ 사회의 단결과 애군심을 연결 지으면서, 사회를 애군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신정윤리교과서』는 다양한 범위의 단체가 있다고 하면서, 小로는 同事共業과 大로는 사회가 있다고 설명했다.¹⁵⁴⁾ 그러나 혈통에 의한 단결만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여 국가로의 합군을 강조하였다.¹⁵⁵⁾

애군하는 방법으로는 애군심을 기르는 도덕적 수양과 실제로 단체를 구성하여 행동하는 실천이 있었다. 그러므로 교육은 애군심을 기르는 방법과 단체를 조직하는 전략 안내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애군심을 기르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는 공의, 공덕, 박애, 신뢰, 爭先, 立信, 存恕를 주장하였다. 『신월남』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애군하다면 프랑스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⁵⁶⁾ 『신정국민독본』은 爭先, 博愛, 立信, 存恕를 들었다. 쟁선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 앞서 나가기를 경쟁하는 것이고, 박애는 아이, 노인, 장애인, 병든 자, 아둔한 자를 위해서 공익에 자신의 돈과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입신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과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⁵⁷⁾ 『신정윤리교과서』는 해로운 말로 겁을 주거나 계약으로 묶어두는 단결은 진짜

150)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11.

151)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위의 책, p.14.

152) 『Đăng cổ tùng báo』 1907.10.10.(821)

153)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위의 책, pp.253~254.

154)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34.

155)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위의 책, p.11.

156)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p.119~120.

157)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p.255~258.

가 아니라 오래 가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公義와 公德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의는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의무로 공의를 가진 사람은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의에는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행동이 포함되었다. 공덕은 개인 간에 지켜야 할 도덕으로, 타인을 좋게 대접하는 것을 적극적인 공덕이라 설명했다. 공덕은 박애하고, 공익을 실천하고, 예의를 지키는 행동을 포함했다.¹⁵⁸⁾ 『국문습독』은 합단하기 위해 남에게 의지하거나 욕심내지 않아야 하며, 작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구해야 하고,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매일 자신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⁹⁾

실제로 단체를 조직하는 일에 대해서는 판 보이 짜우가 1905년 8월 하 락 성에서 동지들에게 민중 합군을 연습하기 위해 농회, 상회, 학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 일이 있다. 『국문습독』의 “합단시”는 판 보이 짜우가 쓴 시문으로 1910년 태국에서 “애군”으로 제호를 바꾸어 재간되었다. 이 시에서 판 보이 짜우는 국민들이 산산이 흩어져서 고립되니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했다. 단체는 닳지 않는 돌, 무너지지 않는 성, 변하지 않는 산과 같으므로, 비바람을 만났다고 해도 급하게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단체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있으므로, 단체는 중하고, 우리는 경하니, 합단을 서로 권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⁶⁰⁾

단체를 조직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등고총보』의 “합군”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¹⁶¹⁾ 프랑스, 중국과 비교하여 베트남 합군의 특징을 설명하고 합군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합군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다”는 서두는 당시 사회에서 합군이란 말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의미했다. 합군은 전 세계 어디에든 있는 말이지만 프랑스, 중국, 베트남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의견을 실행하기 위

158)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위의 책, pp.34~38.

159)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앞의 책, pp.570~571.

160)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위의 책, pp.570~571.

161) 『Đăng cổ tùng báo』 1907.10.10.(821)

해 서로 모이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에서는 윗사람의 의견에 따라 도적을 막고 치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했다. 베트남에서는 동급, 동향, 동업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 모이는 것을 의미했다. 프랑스에서는 단체를 만들면 뜻이 맞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돈과 노력을 기울여 단체의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에 속한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했다. 프랑스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큰 단체인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자신의 본분을 지킨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법률과 군대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며,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만든다고 했다. 베트남에는 단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투는 모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문명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을 존중하는 프랑식 합군 전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합군론은 동경의숙 내의 논의로만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했는데, 합군론의 대두 이후 새롭게 구성된 단체의 이름은 『등고총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고총보』의 알림란에는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단체의 이름과 소식이 공지되었다. 이들 단체는 학교 설립 활동과 교외 계몽 활동을 벌인 교육단체, 사회구제단체, 상업단체, 인권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¹⁶²⁾ 이 중 인권단체인 人權兵域會(Hội binh vực nhân quyền)는 논의만 있고 실제로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는 프랑스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꾸리려고 했으나 프랑스 사람들이 거부하자 베트남 사람들이 단체 조직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등고총보』는 프랑스 사람들이 모임을 따로 만들라고 한

162) 『등고총보』에서 확인한 단체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단체명
교육단체	智知會(Hội Trí tri), 智新學會(Tri tân học hội), 매림의숙회, 옥천의숙회
사회구제 단체	신서번역회, 신문·신서읽기회(Hội xem báo và đọc tân thư), 일본어학습회(Hội học có danh tiếng nhất xứ bắc Kỳ), 프랑스유학후원회(Hội đúp đỡ những người An nam đi học trung học đại học và kỹ học)
상업단체	홍작보험회(Hội bảo hiểm mất mùa), 消防會(Hội Cứu cháy), 合善會(Hội hợp thiện), 여성자선회(Hội tuyên đàn bà)
인권단체	人權兵域會(Hội binh vực nhân quyền)

것은 베트남인의 수가 훨씬 많아 평등에 어긋났기 때문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베트남 사람들은 인권의 핵심인 평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인권과 의무를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단체를 조직하라고 조언했다.¹⁶³⁾

이 단체들이 합군론 이전의 전통적인 단체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을 좇거나 서로 다투지 않았다. 이는 『登高叢報』에서 단체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다. 『登高叢報』는 전통적 단체인 孝會(Hội Hiếu), 同門會(Hội đồng môn), 錢箔會(Hội Tiền bạc), 百工會(Hội Bách công), 斯文會(Hội Tư văn), 紳毫會(Hội Thàn hào)를 비판하면서 단지 외형을 장중하게 꾸며 천하에 체면을 얻기 위해 꾸며낸 모임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들끼리 다투는다고 비난했다. 전통시대에도 합군할 줄 알았지만, 합군한 후에는 서로 힘을 겨루기만 해서 어떤 것도 창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¹⁶⁴⁾ 신서번역회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나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고 설명했다.¹⁶⁵⁾ 매립의 숙회는 개교식 연설문에서 공익을 위한 모임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소방회는 平等愛群의 뜻을 밝히기 위해 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광고했다. 즉, 근대적 단체들은 전통 단체와의 구별을 공익을 강조하고, 회원들 간의 협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운영 방식의 민주성이다. 프랑수유학후원회의 경우 20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고, 회원의 가입과 탈퇴 여부는 회원들이 투표로 결정했다.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治事會同(Hội đồng trị sự)에서 했는데, 치사회동의 구성원은 3년에 1번 회원들이 직접 비밀투표로 결정했고, 1/3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투표했다. 치사회동은 구성원 1/2이상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었고 모든 일은 투표로 결정했다. 치사회동에는 직역을 맞지 않은 회원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투표권은 가지지 못했다. 단체의 자금은 공동재산이었으며, 단체 해산 시 치사회동이 처분하되, 대회동을 열어 기부할 곳을 함께 정했다. 단체의

163) 『Đăng cổ tùng báo』 1907.04.11.(795)

164) 『Đăng cổ tùng báo』 1907.10.10.(821)

165) 『Đăng cổ tùng báo』 1907.10.03.(820)

직역을 맡은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 등급에 따라 최소 6동에서 최고 100동을 회비로 냈다. 일 년에 한번 대회동을 열어 치사회동의 사업을 점검했고, 다음해 지출 계획안을 승인했다. 39개항의 회칙은 신문을 통해 여러 번 사람들에게 공고되었고, 공론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¹⁶⁶⁾ 신서번역회도 지면을 통해 회칙을 공고하고 공론에 따라 회칙을 수정했다. 즉, 이 새로운 단체들은 회원 가입에 자격을 두지 않아 베트남 사람이면 누구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모든 일은 투표로 결정했다. 회칙은 여러 번 공고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고, 단체의 직역을 맡은 사람은 매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비밀투표로 다시 뽑았다.¹⁶⁷⁾ 이러한 민주적인 운영 방식은 전통적인 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한 지역, 한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단위나 전국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프랑스유학후원회의 경우 하노이에 정회를 두고 전국 각 省, 社에 지부를 설치하였는데 프랑스 파리에도 지부가 있었다. 또한 어느 곳이든 회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지부로 만들었다.¹⁶⁸⁾ 흥작보험회 또한 5개성에서 조직되어 전국 각 현에 지부를 두었는데, 현 지부회의 회장이 省 正會의 회원으로 참석했다. 현 단위의 회의는 한 달에 1번 개최되었으며, 이를 수렴하여 성 정회에 제출했다. 5개성의 흥작보험회는 최종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았는데, 이로써 국가 단위의 조직이 되었다.¹⁶⁹⁾ 신문·신서읽기회는 5개 마을에서 조직되었는데, 국가 단위로 단체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⁷⁰⁾ 신서번역회는 북부 지역에서 1,000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남부 지역의 경우 책을 번역하는 부이 팡 찌에우(Bùi Quang Chiêu)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성에서 300명이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300명 모두가 참가하는 대회동을 가졌는데, 이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¹⁷¹⁾

166) 『Đăng cổ tùng báo』 1907.03.24.(등고총보 附章)

167) 『Đăng cổ tùng báo』 1907.03.24.(등고총보 附章)

168) 『Đăng cổ tùng báo』 1907.03.24.(등고총보 附章)

169) 『Đăng cổ tùng báo』 1907.04.11.(795)

170) 『Đăng cổ tùng báo』 1907.07.18.(809)

171) 『Đăng cổ tùng báo』 1907.08.08.(812)

넷째, 국가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 단체를 국가 단위로 묶은 것은 프랑스 식민 정부였다. 식민지 현실 하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는 식민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다. 국가의 허락을 받은 단체인 시단체가 되어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흥작보험회의 경우 회장은 물론 자금 관리의 일까지 프랑스인 관리에게 맡겼는데, 『등고총보』는 이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이 합단에 서투르고 단체를 꾸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언젠가 준비가 되면 베트남 사람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다.¹⁷²⁾ 신서번역회도 자신들이 결코 다른 일을 모의하거나 국가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식민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부유한 자산가 계층만 참여할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매년 회비를 내야했고, 회원의 자격이 부호에게만 한정된 단체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의 설립자나 구성원이 대부분 관리로 식민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단체의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정치 문제를 토론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다.

2) 여성국민 양성론

국민의 자격을 갖춘 인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성 문제는 20세기 초 개명적 지식인들에 의해 처음 주목 받았는데, 그들은 여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는 유교적 관념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대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인식하여 여성도 국민교육을 받을 것을 주장하였다. 판 보이 쩌우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진 선도적인 인물이다. 그는 역사 속의 여성 영웅인 쩡(Trung) 자매에 관한 글을 써서 앞으로 있을 반식민 투쟁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은 봉사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유교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 또한 애국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⁷³⁾ 이후

172) 『Đăng cổ tùng báo』 1907.04.11.(795)

173) David G Marr, “The 1920s Women’s Rights Debates in Vietnam”, *Journal of Asian Studies*, 35:3(1976:May), p.376.

판 보이 짜우는 1926년에 「男國民須知」와 함께 「女國民須知」를 집필하여 여성을 국민론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켰다.¹⁷⁴⁾

개명적 지식인들이 처음 주목한 여성 문제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1907년 『등고총보』를 시작으로, 1913년 『동양잡지』, 1915년 『중북신문』에서 여성 문제를 다룬 연재 칼럼이 있었다. 1920년대에는 “여성과 사회”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를 내용으로 다룬 수백 권의 책과 팜플렛, 기사들이 전국에서 발행되었다. 1926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여성 단체인 가사연구회가 후에에서 결성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도시마다 지부가 설치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1929년 여성 週報 『婦女新聞』의 간행은 여성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한 단계 높였다. 1930년 설립된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의 10대 업무로 삼으면서 女權은 국가의 공식적인 목소리가 되었다.¹⁷⁵⁾

20세기 초 개명적 지식인들이 베트남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을 때 여성 또한 애국 운동에 참여시켜야 했다. 그리하여 여성도 국가 조직의 일부이며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독립 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외혈서』에서는 여성을 구국 운동을 담당할 사회 집단의 하나라고 주장했다.¹⁷⁶⁾ 『국문습독』도 “일본과 미국에서는 부인과 소녀들도 한 마음으로 애국의 일을 도와 여성 가운데서도 영웅 호걸이 생기지만, 우리나라만이 이를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여 여성 또한 애국 운동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¹⁷⁷⁾ 『신월남』은 “경제 여러 분야에서 여성을 고용하면 여성은 남성만큼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이고, 여성의 자존감과 위엄은 남성의 것과 같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⁷⁸⁾ 『등고총보』는 “쫓 자매의 전설을 근거로 베트남의 미래는 여자의 손

174) 今井昭夫, 앞의 글, p.176.

175) David G Marr, 위의 글, p.371.

176) Chương Thân, 「Hải ngoại huyết thư(해외혈서)」,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 Nxb Hà Nội, 2010, pp.466~468.

177)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앞의 책, p.576.

178)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14.

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여성은 결코 무식하거나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¹⁷⁹⁾

그러나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이며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제한하여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했다. 『신월남』은 여성을 “아이를 가르치는 전문 교육가, 남편의 순종적인 부인, 군인을 돕는 유용한 보조자, 문학과 시에 능한 존재”라고 설명하였다.¹⁸⁰⁾ 『신정윤리교과서』는 “남편은 부인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¹⁾ 『등고총보』는 여성을 남성의 일을 돕는 보조자로 보고, “여성들이여, 옛날 쫓 자매는 힘들게 나라를 구했지만 만일 지금 나라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때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떤 재능이나 힘도 필요하지 않다. 배고프다며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이 일어서도록 돕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¹⁸²⁾ 또한 량썬의 여교사가 여학생들을 위해 집필한 윤리 교과서에는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다,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른다, 임신을 한다, 첩과 하인과 가족들을 돌본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가 그 내용이었다.¹⁸³⁾

그러나 여성을 국민으로 인식한 쪽이든 남성의 보조자로 인식한 쪽이든 모두 여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전근대 시대 여성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여자는 가르치기 어렵다”는 공자의 말에 따라 여성은 성현의 말씀을 배울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애로운 어머니,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한 工, 容, 言, 行의 4덕을 집안에서 배웠으며,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가르쳤다. 프랑스 식민 시대에도 극히 소수의 여성만 제도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1887년 Dumouti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 지방에는 여자 소학교가 4곳-하노이 2, 하이퐁 1, 남딩 1곳-이 있었다. 학생 대부분은 프랑스인이었고 베트남 여학생은 약 30명이었

179) 『Đăng cổ tùng báo』 1907.07.18.(809)

180) 「The New Vietnam(신월남)」, 위의 책, p.114.

181) 『Đăng cổ tùng báo』 1907.04.11.(795)

182) 『Đăng cổ tùng báo』 1907.04.11.(795)

183) George Dutton, *Advertising, Modernity, and Consumer Culture in Colonial Vietnam, The Reinvention of Distinction-Modernity and the Middle Class in Urban Vietnam*, Dordrecht; New York: Springer, 2012.

다.¹⁸⁴⁾ 이에 개명적 지식인들은 동경의숙에 여학생반을 만들어 여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였다. 여학생들에게 역사, 문화, 정치 수업에 참여할 것을 격려했다. 수업 시간에는 역사 속의 여성 영웅인 쯩 자매의 전설을 얘기해주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 여성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국어를 가르친 응우옌 티 지엠(Nguyễn Thị Diễm)과 프랑스어를 가르친 르엉 티 띠(Lương Thị Tín)이 여성 교사였다. 동경의숙 관계자들의 자식과 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1956년 『동경의숙』 책을 편 응우옌 히엔 레(Nguyễn Hiến Lê)는 1907년 3월 처음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두 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학생반, 다른 하나는 여학생반으로 모두 합쳐 70명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 여학생반을 여는 것은 커다란 개혁이었다. 교사들은 남존여비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여성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다”고 회고했다.¹⁸⁵⁾

동경의숙의 여성 교육에는 많은 여성들이 호응했는데, 『등고총보』는 남 딘에서 올라온 2명의 여성을 소개하였다. 이들이 동경의숙에 와서 “우리는 동경의숙에서 여학을 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도 이 일을 걱정하였지만 여자의 신분으로 학교를 여는 모임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동경의숙에서 일하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여성들과 함께 동경의숙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어, 한자, 여공업에 능하니 동경의숙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¹⁸⁶⁾

여성 교육 문제는 동경의숙의 교과서와 신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다. 『국민독본』은 일본 여자 사범학교와 여자 고등학교를 소개하면서, 베트남에서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국문습독』은 “여성에게 권하는 시(Bài Hát Khuyến Đàn Bà)”에서 베트남 여성 가운데 영웅호걸이 나오지 않은 것은 남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

184) Trần Thị Phương Hoa, 「Giáo dục và phong trào nữ quyền ở Bắc Kỳ trước 1945(1945년 이전 북부 지역 여성운동과 교육)」, 『Văn Hóa Nghệ An』 2012, pp.1~3.

185) Trần Thị Phương Hoa, 위의 글, p.3.

186) 『Đăng cổ tùng báo』 1907.10.17.(822)

이라고 하며, 여성들에게 역사 속의 학식을 가진 여성들을 본받아 지식을 갖출 것을 주장하였다.¹⁸⁷⁾ 『신월남』은 군인 교육과 함께 여성 교육을 교육의 2대 요소로 보았다. 충분히 교육 받지 못한 군인이 나라를 위해, 동포를 위해, 국가 번영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는 것처럼, 충분히 교육 받지 못한 여성은 아이를 가르치는 전문 교육가, 남편의 순종적인 부인, 군인을 돕는 유용한 보조자, 문학과 시에 능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교육 받은 여성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문명화시키는데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⁸⁾

『등고총보』의 연재 칼럼 “여성의 말”에서는 가장 먼저 여학의 일부부터 논의하였다. 남성들은 부인이 자신을 떠받들고 굴복하길 원해 여성 교육을 반대한다고 비판하면서 여성도 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⁹⁾ 특히 베트남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 교육을 말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베트남의 인구는 이천만이 넘는데 그 절반이 여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일부 부잣집에서만 장부에 숫자를 기입할 목적으로 몇몇 한자를 가르쳤을 뿐이다”¹⁹⁰⁾. “베트남 여성들은 지식이 있고 생각할 줄 안다면 모두 훌륭해질 것”¹⁹¹⁾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의 교육은 여성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²⁾

여성 교육의 수업 내용으로는 전통적인 소양과 근대적 지식이 함께 언급되었다. 『신월남』은 “여성 교육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가장 좋은 것 중에서 뽑아야 하고, 여성을 가르치는 학교는 훌륭한 선생님을 고용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¹⁹³⁾ 여성 교육은 여성 자신과 가정에 이익이 되는 일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학교의 시험에

187)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앞의 책, pp.576~577.

188)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14.

189) 『Đăng cổ tùng báo』 1907.05.23.(801)

190) 『Đăng cổ tùng báo』 1907.03.28.(793)

191) 『Đăng cổ tùng báo』 1907.07.25.(810)

192) 『Đăng cổ tùng báo』 1907.10.17.(822)

193) 「The New Vietnam(신월남)」, 위의 책, p.114.

포함시켜야 할 내용으로 “국어, 윤리·내조·생계·경농·위생·출산의 일, 수학, 정교한 토산물 제작의 일”을 말하였다.¹⁹⁴⁾ 현모양처를 기르는 윤리, 내조 등의 전통 교육과 위생, 생계, 수학 등의 근대 교육을 함께 주장한 것이다.

여성 교육은 賢女, 賢母, 賢婦 양성을 목표로 했다. 주로 도덕성 교육과 기초 지식 교육을 통해 여성이 현녀, 현모, 현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훌륭한 인품을 가꾸기 위해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⁹⁵⁾ 교육 내용은 훌륭한 덕성과 인품을 기르기 위한 도덕성 교육이며 현모양처를 기르는 전통 교육과 비슷했다. 『신정윤리교과서』는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고 대접하고 남편의 일을 권려해야 한다. 부인은 집안일을 걱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며 남편과 함께 가족의 창성을 걱정하고 언제나 즐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¹⁹⁶⁾ 즉, 여성의 역할을 가정 안으로 국한하여 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성 교육은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여성을 기르고, 남녀평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관점에서는 교육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여성은 좋은 엄마, 순종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재능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신월남』은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여성 교육의 목적”이라고 했다.¹⁹⁷⁾ 『등고총보』 793호는 국어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성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배우더라도 명성과 명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¹⁹⁸⁾ 즉 배움이 끝난 후에 사회 참여나 취업 활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이다. 여성 교육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와 취업 활동을 주목한 것이다. 『신월남』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언급하며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상업학교, 요양

194) 『Đăng cổ tùng báo』 1907.03.28.(793)

195) 『Đăng cổ tùng báo』 1907.07.25.(810)

196)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18.

197) 「The New Vietnam(신월남)」, 앞의 책, p.114.

198) 『Đăng cổ tùng báo』 1907.03.28.(793)

원, 무역 아울렛, 은행, 우체국, 버스, 기차에서 교육 받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남성만큼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여성의 자존감과 위엄은 남성과 같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⁹⁹⁾

또한 여성 교육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국가 독립과 문명화의 조건으로 보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월남』은 “문명화 계획에서 여성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애국심을 가진 여성이 없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²⁰⁰⁾ 『신정국민독본』은 일본의 학교 제도를 소개하면서 여성 교육을 설명하였다. 문부성이 담당하는 제국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를 설명하면서, 여자 소학 교원을 양성하는 여자 사범고등학교와 여학생들을 위한 고급보통학교인 여자 고등학교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도 여성 교육 시설의 설립을 촉구하였다.²⁰¹⁾

한편, 여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여권은 대체로 여성 교육을 전제로 했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여권은 여성을 구속하거나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유교적 전통 질서와 사회의 여러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자유연애와 혼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일부다처제와 남존여비 사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부분 남녀 관계에서의 여성의 권리인데, 자유권, 평등권 등의 인권이나 선거권, 정치참여 등의 사회·정치적 권리는 논의되지 않았다.

1900년대 초 여권이 가장 많이 논의 된 곳은 『등고총보』였다. 『등고총보』의 여성 칼럼 “여성의 말”에서는 여권과 관련하여 정략결혼, 결혼 지참금 문제, 일부다처제, 자유연애, 남성의 여성 희롱, 임신, 자녀 양육, 고아원 설립, 의복 문제, 장례식, 미신탐닉, 남존여비 사상을 얘기하였다. 이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배는 키를 따르고 여성은 남성을 따른다”, “딸은 백이 있어도 아들 불알 한쪽만 못하다”, “未嫁從父 既嫁從夫 夫死從子” 등의 말 속에서 예속과 굴종만을 강요받았던 여성에게 처음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199) 「The New Vietnam(신월남)」, 위의 책, p.114.

200) 「The New Vietnam(신월남)」, 위의 책, p.114.

201) 「Tân đĩnh Quốc dân độc bản(신정국민독본)」, 앞의 책, pp.284~285.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성의 말”은 남성 독자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아서, 남성 독자들의 반박 편지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전근대 사회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지위는 특히 결혼 문제에서 두드러졌다. 전통 관습에 따라 일찍부터 정략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략결혼에 대해서 “고금 이래 남자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부인을 얻기 때문에, 부인을 학대하며 때린다”고 하면서, “부인을 얻기 전에 부인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지, 부인을 사랑하는지, 상대방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부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 어릴 때에 시집보낼 일이 결정”됨을 비판하고, “결혼하는 일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부”라고 주장하였다.²⁰²⁾ 지참금에 대해서는 “자식이 이빠서 비싸게 팔 작정이었는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 터무니없이 비싼 지참금을 요구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남자가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의 부당함을 지적했다.²⁰³⁾ 일부다처제에 대해서는 “군자는 공명”해야 하므로, “부인에게 한 명의 남편이 있길 바란다면, 자신도 한 명의 부인만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⁴⁾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비판은 여러 방향에서 있었다. “상공시대 남자들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남자가 굶어죽는다고 가르칠 정도였는가? 우리나라는 여자들에게 힘든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하면서 여성에게만 갖가지 봉건적 의무를 지우는 남성을 비판했고,²⁰⁵⁾ 부인과 아이와 함께 나왔다가 자신만 삼등칸을 타고 돌아간 남성의 일화와²⁰⁶⁾ 부인과 가족들의 형편은 헤아리지 않고 서양 옷을 차려입고 외출한 남성을 소개하면서,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고 비판했다.²⁰⁷⁾ 여성을 희롱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희롱할 때는 장중한 수단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서 “얕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

202) 『Đặng cổ tùng báo』 1907.05.30.(802)

203) 『Đặng cổ tùng báo』 1907.08.08.(812)

204) 『Đặng cổ tùng báo』 1907.8.29.(815)

205) 『Đặng cổ tùng báo』 1907.04.11.(795)

206) 『Đặng cổ tùng báo』 1907.06.13.(804)

207) 『Đặng cổ tùng báo』 1907.08.15.(813)

음속의 얽음을 내보이지 말라”고 하여 여성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⁰⁸⁾ 『신정윤리교과서』도 사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인 공덕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농락하는 습관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남성은 도울 때가 아니고서는 여성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²⁰⁹⁾

이처럼 여권 문제는 남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 1920년대가 되면 정치 사회적 권리로 논의가 확산된다. 여교육과 여권 주장은 상호 보완하며 여성도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그 시작은 동경의숙이었다.

208) 『Đăng cổ tùng báo』 1907.06.27.(806)

209)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앞의 책, p.38.

5. 結語

지금까지 동경의숙의 유신교육운동과 국민 양성론을 살펴보았다. 동경의숙은 학생들의 사전지식과 흥미에 따라 소학과 중학으로 나눈 8개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역사, 지리, 윤리, 한문 등의 전통 학문과 자연과학, 위생, 수학, 경제, 프랑스어, 체육, 공민 등의 근대 학문을 모두 수학했고, 교사들은 교과서 편찬에 직접 간여하였다. 교내 수업 활동 이외에도 『登鼓總報』를 발행하고, 신서 번역 모임을 갖고, 연설회를 여는 등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활발한 계몽활동을 벌였다. 동경의숙은 자주적인 교육 개혁을 통한 문명개화 달성을 목표로 삼은 유신교육운동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동유운동과 상호 보완하며 국민 전체의 민지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사들은 직접 교과서를 만들어 수업 시간에 활용했으며, 시민 사회의 계몽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지 확장은 문명개화의 전제였으며, 문명화 이후에는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새롭게 건설할 근대 국민국가의 국가체제는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교육을 통해 愛群하고 愛國하는 자격을 갖춘 국민을 먼저 양성하여 입헌군주제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동경의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 교육과 구분되는 신교육을 실시했다. 동경의숙이 실시했던 실업교육, 보통교육, 여성교육, 국어교육, 인재교육은 근대 서구식 교육 사상의 영향을 받아 교육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이었다. 근대 국민상에서 살펴 본 세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愛群하고 愛國하는 국민은 문명개화와 주권 회복을 되찾기 위한 전제였다. 그리고 그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국민자격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다. 동경의숙의 운동은 비슷한 시기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 중국, 일본이 부국강병과 문명화를 위해 도입한 근대 교육 개혁과 국민국가 구상과 유사하며,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사의 관점에서 베트남 교육사를 재조명할만한 가치가 있다.

청말 신정개혁기(1901-1911) 중국 지식인들의 국민양성론에서도 국민은 平等하고 獨立된 公權의 주체로서 合群·自治를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

되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마땅히 자치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생활과 밀접한 범위 안에서 소규모의 자율적 단체를 형성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자각·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그런 단체를 전국적으로 상호연합하여 대단체를 결성해야만 비로소 근대국가의 애국하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 이에 국민자격으로서 특별히 강조된 것이 “습群” 능력이다.²¹⁰⁾ 동경의숙 교과서는 이를 “愛群”이라 표현하였을 정도로 흡사하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문명화의 상징인 입헌국 국민의 자질로만 파악된데 비해 중국의 그것은, 입헌시대 문명의 표준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화혁명운동의 흥기에 따라 공화국민의 자격으로 간주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차이가 있다.²¹¹⁾ 물론 베트남에서도 그 후 점차 공화혁명론이 대두됨에 따라 이 같은 의미의 진화가 이어졌을 것이다.

당시 베트남의 여성국민 양성론 역시 중국의 그것과 비교해볼 만하다. 청말 지식인들은 근대국가건설에 동원하기 위해 ‘女國民’개념을 사용하면서 여국민 양성론을 주장하였다. 여국민 양성론은 온건하고 소극적인 여학론에서 적극적인 여학론, 소극적인 여권론,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여권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소극적인 여학론은 여성의 활동을 주로 가정에 국한시키며 전통적인 부덕을 중시하였고, 적극적인 여학론은 여학이 완성된 후에는 참정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에 종사하며 여권을 실현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소극적인 여권론은 여성이 국민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여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을 강조하여지만 혁명을 간접 지원하는데 그쳤고, 적극적인 여권론은 여성도 혁명 활동에 헌신하고 참정을 비롯한 모든 국사에 관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²¹²⁾ 아쉽게도 단기간 존속한 동경의숙의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이처럼 다양하게 분기하는 여국민 양성론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의 애국계몽운동시기 각종 學會를 비롯한 단체결성운동은 “습群”·“愛群” 운동에 해당하며, 그것을 통해 자치능력을 갖춘 국민자격을

210) 유용태, 앞의 글, pp.258~260.

211) 유용태, 위의 글, p.260.

212) 장운선, 「清末 ‘女國民’養成論의 展開」,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8, pp.44~45.

양성하려 했던 것이다. 각지에 수많은 민립학교가 설립되어 그러한 운동의 매개체가 되었는데, 그 속에는 여국민 양성론에 해당하는 주장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1896년에 창간된 『獨立新聞』은 논설을 통해 조혼의 폐지와 자유결혼, 과부 재가금지의 철폐, 축첩제의 폐지, 기생제도의 철폐, 여학교의 설립과 여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교육시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며, “자고로 여성을 교육시키지 않는 나라는 망하며 힘쓰는 나라는 흥한다”고 주장했다.²¹³⁾ 이는 베트남 개명적 지식인들의 국민 양성론과 여성 교육 주장과 비슷하다.

이상의 예들은 3국의 상관성을 초보적으로 언급한데 불과하며, 이들 사이의 차이점과 특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간의 지식이 전파되고 교류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자세한 관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동경의숙의 교육 내용, 교육 사상, 견식은 전통적인 유교 교육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동경의숙은 외국의 사상과 문물의 소개에만 매달리지 않고 전통 유교 지식의 의의도 인정하고 있었다. 한문을 가르치고, 충의심과 존왕애국 정신을 우선하며, 중국에 의존적인 대외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경의숙 관계자들이 전통 유교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었거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로 국가, 학문 그리고 민족 구국 방법에 관한 인식이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근대적인 국가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통 윤리 사상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濫故知新적 태도는 중국의 中體西用, 조선의 東道西器, 일본의 東道西藝·和魂洋才와 닮아있다.²¹⁴⁾

동경의숙의 온고지신적 국민국가 구상과 중국 중심의 대외 인식은 20

213) 주진오 외, 『한국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pp.227~237.

214) Vo hung thanh과 Vu thanh tu anh이 동경의숙의 태도를 온고지신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Võ Hùng Thanh, 「“Ôn cố nhi tri tân”, hay qua trăm năm thử nhìn lại “온고지신”, 백년 전을 다시 본다」,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Vũ Thành Tự Anh, 「Ôn Cố - Tri Tân 온고-지신」,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세기 초 베트남 개명적 지식인들의 사상적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1920년대 급진적인 사상이 들어올 때까지 이어진다.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던 시기, 식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문명국이 되어 주권을 회복하려는 베트남의 교육 개혁 운동은 프랑스의 방해로 단기간에 그쳤다. 그러나 교육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식민 정부를 압박하여 1907년 인도차이나 대학을 설립하고 근대 보통교육 기관을 확대하는 등 근대적 교육 개혁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 천 명에 달하는 동경의숙 출신과 수 백 명의 동유운동 참가 학생, 전국 각지의 의숙에서 학습한 학생들은 이후 베트남 근대 민족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본고는 동경의숙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상을 밝히고 그 위에서 추구된 국민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집중하였다. 이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이후 이어지는 민족 운동에서 동경의숙 출신들이 어떤 활동을 벌이는지에 대한 추적은 진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근대 베트남 민족 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1. 사료

1) 신문

『Đăng cổ tòng báo(登鼓總報)』, 1907.

2) 교과서

『國文習讀』, Đông Kinh Nghĩa Thục, 1907.

(Chương Thái, 「Quốc văn tập đọc(국문습독)」,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 Nxb Hà Nội, 2010.)

『新訂國民讀本』, Đông Kinh Nghĩa Thục, 1907.

(Chương Thái, 「Tân đĩnh Quốc dân đọc bản(신정국민독본)」,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1, Nxb Hà Nội, 2010.)

Phạm Tư Trục, 『新訂倫理教科』, Đông Kinh Nghĩa Thục, 1907.

(Chương Thái, 「Tân đĩ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 Nxb Hà Nội, 2010.)

『文明新學策』, Đông Kinh Nghĩa Thục, 1907.

(Chương Thái, 「Văn minh tân học sách(문명신학책)」,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1, Nxb Hà Nội, 2010.)

Phan Bội Châu, 『海外血書』, 1906.

(Chương Thái, 「Hải ngoại huyết thư(해외혈서)」,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 Nxb Hà Nội, 2010.)

3) 문집

梁啓超, 『越南亡國史』, 上海: 廣智書局, 1905.

(안명철·송엽희 역주, 양계초 편저,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Phan Bội Châu, 『新越南』, 1907.

(Truong buu lam, “The New Vietnam(신월남)” Colonialism Experienced vietnamese writings on colonialism 1900-1931,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Truong Buu Lam, *Colonialism Experienced vietnamese writings on colonialism 1900-1931*,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Vinh Sinh, *Overtured chariot: the autobiography of Phan Bội Châu*, School of Hawaiian, 1999.

2. 연구서

송정남, 『베트남 사회와 문화 들여다보기』, 후에북스, 2013.

오구라 사다오,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사』, 일빛, 1999.

유용태·박진우·박태균, 『함께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창비, 2010,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012.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사』, 이산, 2002.

유지열, 『베트남민족해방운동사』, 이성과현실사, 1986.

윤대영, 응우옌 반 낀, 응우옌 마인 중, 『1862~1945, 한국과 베트남의 조우』, 이매진, 2013,

윌리엄 J. 듀이커, 『호치민 평전』, 푸른숲, 2003.

주진오 외, 『한국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채수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범, 동아동문회』, 경북대 출판부, 2012.

후루타 모토오, 『베트남의 세계사』, 개신, 2008.

3. 연구 논문

강진호, 「전통교육과 ‘국어’교과서의 형성-소학독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1, 2014.

김성범,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사상 비교 연구」, 충남대 철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3.

노영순, 「베트남에서 한자의 쇠락; 프랑스 식민주의와 베트남 민족주의 사이에서」, 『아세아연구』 45-4, 2002.

노영순, 「러일전쟁과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의 유신운동-동유운동과 동경의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0, 2004.

배양수, 「판 보이 쩌우와 동유운동의 역사적 의미」, 『외대논총』 24,

- 2002.
- 아르노 낭타, 「프랑스의 식민화 역사-개관과 동향」, 『근대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국민통합』,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백영서, 「20세기형 동아시아 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 『창작과 비평』 27(4), 1999.
- 유용태, 「近代中國의 職業團體와 民意形成, 1901-1919」, 『東洋史學研究』 101, 東洋史學會, 2007.
- 유인선, 「방황하는 민족주의자, 관 보이 씨우」, 『歷史教育』 90, 2004.
- 윤대영,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동아연구』 53, 2007.
- 윤대영,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베트남의 '新書' 수용-초기 개혁운동의 기원과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117, 2011.
- 이한우, 「한국의 베트남 연구」, 『아시아리뷰』 제3권 제1호(통권 5호), 2013.
- 장윤선, 「清末 '女國民'養成論의 展開」,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정연식, 「동경의 베트남 학생들, 1906-1909」, 『동남아시아연구』 24권 1호, 2014.
- 최갑수,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근대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4. 외국서

- Đào Trinh Nhất,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 Hà Nội: Mai Lĩnh, 1937.
- Đỗ Quang Hưng, 『Lịch sử báo chí Việt Nam 1865 - 1945(베트남 언론사 1865-1945)』, Hà Nội: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2001.
- Nguyễn Hiến Lê,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 Hà Nội: Nxb Văn hóa Thông tin, 2002.
- Chương Thâu, 『Đông Kinh Nghĩa Thục và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1,2, Hà Nội: Nxb Hà Nội,

- 2010.
- Nguyễn Quang Ngọc, 『Tiến trình lịch sử Việt Nam(베트남역사과정)』, Hà Nội: Nxb Giáo dục, 2000.
- Nguyễn Lâm Bình, 『Nguyễn Văn Vĩnh là ai?(응우옌 반 빈은 누구인가)』, Hà Nội: Nxb Tri thức, 2013.
- Nhiều tác giả,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Hà Nội: Nxb Tri thức, 2008.
- Nhóm Nhân văn trẻ, 『Hỏi đáp lịch sử Việt Nam(베트남 역사 문답)』 5, Hồ Chí Minh: Nxb Trẻ, 2013,
- Phan Ngọc Liên, 『Lịch sử 11 Nâng cao(역사 11 심화)』, NXB Giáo Dục, 2007.
- Phan Quý Bích,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시문)』, Hà Nội: Văn hóa, 1997.
- Sơn Nam, 『Phong Trào Duy Tân Ở Bắc Trung Nam - Miền Nam Đầu Thế Kỷ XX (20세기 초 남부 북중부의 유신운동)』, Hồ Chí Minh: Nxb Trẻ, 2009,
- Thị Nhâm Tuyết Lê, 『Phụ nữ Việt Nam qua các thời đại(각 시대의 베트남여성)』, Hồ Chí Minh: Nxb Khoa học xã hội, 1975.
- Trương Hữu Quýnh, 『Đại cương lịch sử Việt Nam(베트남역사대강)』, Hà Nội: Nxb Giáo dục, 2014.
- David G. Marr, *Vietnamese Anticolonialism 1885~1925*,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71.
- Neil L. Jamieson, *Understanding Vietna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Shawn Frederick McHale, *Print and Power: Confucianism, Communism, and Buddhism in the Making of Modern Vietnam*, 2004.

Youn Dae-Yeong, *Les idées et les mouvements réformistes, en Corée et au Viêt Nam*, Éditions universitaires européennes, 2010.

5. 국외 논문

Chương Thâu, 「Đông Kinh nghĩa thực trong phong trào Duy Tân đổi mới văn hoá Việt Nam đầu thế kỷ XX(20세기초 베트남 문화를 바꾼 유신운동 속의 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Chương Thâu, 「Vài ý kiến sơ lược về tài liệu giáo khoa của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의 교과 자료에 대한 간략한 몇가지 의견)」

Chương Thâu, 「Về một sưu tập văn thơ Hán Nôm của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의 한문시문수집에 관해)」, 『Thông báo Hán Nôm học』, 2006.

Đặng Quốc Bảo, 「105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1907-2012): Bài học kinh nghiệm cho đổi mới giáo dục hôm nay(105년 동경의숙; 오늘날 교육 개혁에 주는 경험담)」,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 2012.

Đặng Việt Thanh, 「Phong trào Đông Kinh nghĩa thực - cuộc cách mạng văn hóa dân tộc dân chủ đầu tiên ở nước ta(동경의숙 운동-베트남 최초의 민주민족문화혁명)」, 『Nghiên cứu Lịch sử』 25, 1961.

Đào Duy Mẫn, 「Đào Nguyên Phổ và Đông Kinh nghĩa thực(다오 응우옌 포와 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Hoàng Như Mai,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Lý Tùng Hiếu, 「Lương Văn Can, người kể tục tình thần Đông Kinh nghĩa thực trong kinh doanh(르영 반 칸, 경영에서 동경의숙 정신을

- 계승한 인물)」,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 Nguyễn Anh, 「Đông Kinh nghĩa thực có phải cuộc vận động cách mạng văn hóa dân tộc không?(동경의숙은 민족문화혁명운동인가?)」, 『Nghiên cứu Lịch sử』 32, 1961.
- Nguyễn Kim Sơn, 「Tư tưởng luân lý mới của các nhà Nho Duy Tân trong “Tân đính luân lý giáo khoa thư”(“신정윤리교과서”속에 보이는 유신 유학자들의 새로운 윤리사상)」, 『Triết học』 4, 2009.
- Nguyễn Lâm Bình, 「Nguyễn Văn Vĩnh với Đông Kinh nghĩa thực(응우옌 반 빈과 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 Nguyễn Thị Nhung, 「Nhà báo Nguyễn Văn Vĩnh với việc phê phán thói hư tật xấu trên báo chí(언론에 나타난 언론인 응우옌 반 빈의 고루한 악폐 비판)」, Luận văn Thạc sĩ,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2014.
- Nguyễn Thành, 「Đông Kinh Nghĩa Thực và Đại nam(동경의숙과 등고총보)」, 『Nghiên cứu Lịch sử』 293, 1997.
- Nguyễn Thị Mai, 「Nghiên cứu Hán văn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한문에 관한 연구)」, Luận văn Thạc sĩ,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2011.
- Nguyễn Thu Giang, 「<Đăng cổ Tùng báo> trong bối cảnh Việt Nam đầu thế kỷ XX(20세기초 베트남 배경 속에서의 <등고총보>)」,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1999.
- Nguyễn Văn Hạnh, 「Đông Kinh nghĩa thực với mô hình giáo dục mới và tinh thần tự phê phán dân tộc(동경의숙과 새로운 교육모형, 민족자아비판정신)」,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 Nguyễn Văn Kiệm, 「Góp thêm vào sự đánh giá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평가에 덧붙여서)」, 『Nghiên cứu Lịch sử』 4 (293),

- 1997.
- Phong Lê, 「Sau 100 năm - Từ nguồn sáng Đông Kinh nghĩa thực(100년후-동경의숙의 기원에서부터)」,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 Quốc Anh, 「Từ Đại nam đến Đảng cổ tùng báo(대남동문일보에서 등고총보까지)」, 『Nghiên cứu Lịch sử』 164, 1975.
- Tô Trung, 「Phong trào Đông Kinh nghĩa thực-một cuộc cải cách xã hội đầu tiên(동경의숙운동-최초의사회개혁)」, 『Nghiên cứu Lịch sử』 32, 1961.
- Trần Minh Thư, 「Cố gắng tiến tới thống nhất nhận định về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에 대한 통일 의견으로 가는 노력)」, 『Nghiên cứu Lịch sử』 81, 1965.
- Trần Thanh Đạm,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ực - Những bức thông điệp đầy huyết lệ qua 100 năm(동경의숙 시문-100년 전 피와 눈물의 통첩들)」,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 Trần Thị Phương Hoa, 「Giáo dục và phong trào nữ quyền ở Bắc Kỳ trước 1945(1945년 이전 북부 지역 여성운동과 교육)」, 『Văn Hóa Nghệ An』, 2012.
- Trịnh Tiến Thuận, 「Fukuzawa Yukichi - Kháng Ứng nghĩa thực(Keio Gijuku) của Nhật Bản và Đông Kinh nghĩa thực ở Việt Nam(일본의 게이오 의숙과 베트남의 동경의숙)」,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ức, 2008.
- Trương Bích Hạnh, 「100 năm nghiên cứu Đông Kinh nghĩa thực ở Việt Nam: kết quả và triển vọng(베트남의 동경의숙 연구 100년; 결과와 전망)」, Kỷ yếu hội thảo: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và công cuộc cải cách giáo dục Việt nam hiện nay, 2012.
- Võ Hưng Thanh, 「“Ôn cố nhi tri tân”, hay qua trăm năm thử nhìn lại(“은고지신”, 백년 전을 다시 본다)」, 『100 năm Đông Kinh nghĩa

- thục』, Nxb Tri Thúc, 2008.
- Vũ Ngọc Khánh, 「Một nhà trường mở đầu nền giáo dục mới(신교육의 장을 연 학교)」,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úc, 2008.
- Vũ Thành Tự Anh, 「Ôn Cổ - Tri Tân(온고-지신)」,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 Nxb Tri Thúc, 2008.
- David Marr, “The 1920s Women’s Rights Debates in Vietna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35, No.3, 1976.
- George Dutton, “Advertising, Modernity, and Consumer Culture in Colonial Vietnam”, *The Reinvention of Distinction-Modernity and the Middle Class in Urban Vietnam*, Dordrecht; New York: Springer, 2012.
- Mark Philip Bradley, “Becoming Van Minh: Civilizational Discourse and Visions of the Self in Twentieth-Century Vietnam”, *Journal of World History*, Vol.15, No.1, 2004.
- Trần Thị Phương Hoa, “Franco-Vietnamese Schools for Girls in Tonkin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Harvard-Yenching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2010.
- Vũ Đức Bằng, “The Đông Kinh free school movement 1907-1908”, *In Aspects of Vietnamse History*,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3.
- 今井昭夫, 「植民地期ベトナムにおける立憲論と1946年憲法」, 『東南アジア學』 6, 東京外大, 2000.
- 今井昭夫, 「20世紀初頭のベトナムにおける開明的儒學者たちの國民國家構想」, 『アジアの國民國家構想-近代への投企と葛藤』, 青木書店, 2008.
- 白石昌也, 「開明的 知識人層の形成」, 『東南アジア研究』 13-4, 1976.

<표 1> 동경의숙 교과서 목차

1-1. 『新訂倫理教科書』 목차

상편	하편
社會緣起	論不行科學之無害
愛群心	原兵
戀家戀鄉非群心	日本徵兵略法
爭先	賦稅
博愛	釋權利責任
立信	原法
存恕	釋法
原國	中國司法各官
我國立國之古	日本裁判制度
我國開化之早	日本刑罰
文明	變法律必先立信
文明無止境說	論交通法
國與人民之關係	地方應行政務
國民解	論地方警察
國不能獨立之慘	日本地方警察
民強則國強	編審
愛國	法國民跡據
愛國之寔	宗教
忠義	產業
獨立	通商
勿觀望政府	貨幣
進取	國法
競爭	賒借
天命正誤	銀行
勇武	欠票雁票及銀行折扣
政體	票
原君	公司
原官	
本國官職及政府	
日本政府及地方制度	
日本國議會及地方議會	
國民宣知政理	
論變舊習之難	
教育	
釋學	
日本學校	
論科學之害	

1-2. 『新訂倫理教科書』 목차

	대분류	소분류
1	총론	國體 孝忠
2	對國	國 尊王愛國 守法 兵役 納稅 選舉議員 教育子女
3	對家	家族 夫婦 夫兄弟
4	對己	己 衛生 膈智 進德
5	對人	尊師 敬長 交友
6	對社會	社會 公義 公德
7	對庶物	博愛 動物 植物

1-3. 『國文習讀』 목차

1. 국어학습을 권하는 시	8. 어머니가 아이에게 권하는 노래	15. 술을 마시는 사람을 훈계하는 노래
2. 애국시	9. 부인이 남편에게 권하는 노래	16. 도박을 하는 사람을 훈계하는 노래
3. 합단시	10.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말하는 노래	17. 미신을 믿는 사람을 훈계하는 노래
4. 우리나라의 길을 이야기 하는 시	11. 젊은이에게 권하는 노래	18. 출가를 권하는 노래
5. 여성에게 권하는 시	12. 멀리 공부하러 가는(유학을 떠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노래	18B. 국혼을 소리치다
6. 여섯 무리에 관한 글	13. 신문을 보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노래	19. 금운교전에 대한 노래
7. 출가를 권하는 시		

<표 2> 『등고총보』 기사 목록

발행호수 발행일	사실 기사 제목	연재 기사 항목	쪽수	결수
03-24-1907	등고총보 附章(中學, 大學, 技學로 가는 프랑스유학후원회)			
1(793) 03-28-1907	신문발간사, 하노이 기술학교에 대해서, 도박에 대해서, 베트남 상업회사에 대해서(1),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글자를 써야한다, 여성교육에 대해	세계전보, 하노이소식, 하이퐁소식, 지방소식, 신문사알림, 광고, 시	2~16	
2(794) 04-04-1907	신문을 비난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리선출의 일, 악폐에 대해서, 베트남 상업회사에 대해서(2)	하이퐁소식, 지방소식, 신문사알림, 광고,	18 ~ 32	
3(795) 04-11-1907	용감한 여성, 사람이냐 땅이냐(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흥작보협회, tran tan binh의 연설(1)	시·부·가·말(추가),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하이퐁소식, 남부6성소식, 광고	34 ~ 48	
4(796) 04-18-1907	장례문화에 대해서, 화차에 대해서, tran tan binh의 연설(2), 베트남 상업회사에 대해서(3)	시·부·가·말, 새책소개(추가),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남부 소식, 신문사알림	50 ~ 62	
5(797) 04-25-1907	도시 의회 선거에 대해서(1), 물을 정화하는 일에 대해서, tran tan binh의 연설(3)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신문사알림, 새책소개, 지방소식, 광고	64 ~ 80	64
6(798) 05-02-1907	도시 의회 선거에 대해서(2), 시대에 뒤떨어짐에 대해서, 여러 식물 재배법에 대하여	새책소개, 신문사알림, 광고	82 ~ 96	86,88,90,92
7(799) 05-09-1907	도시 의회 선거에 대해서(3), 마을학교 교사 선임에 대해서, Denis Papin 傳, tran tan binh의 연설(4)	시·부·가·말,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신문사알림, 지방소식, 새책소개, 광고	98 ~ 112	106(반쪽)
8(800) 05-16-1907			114 ~ 128	전체
9(801) 05-23-1907	tran tan binh의 연설(5), 사절단의 행정(1), 하노이 의회 선거에 대해서	여성의말(추가), 시·부·가·말,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광고	130 ~ 144	130
10(802) 05-30-1907	쌀이 부족한데 부적을 사서 태우는 일에 대해서, 첩을 얻는 병에 대해서, 독립 선거에 대해서, 사절단의 행정(2)	여성의말, 시·부·가·말,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광고	146 ~ 160	
11(803) 06-06-1907	전령관리에 대해서, 도시회동, 사절단의 행정(3)	시·부·가·말,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광고	162 ~ 176	168,170
12(804)	사절단의 행정(4)	여성의말, 시·부·가·	178 ~	178,180,19

06-13-1907		말, 광고,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192	0,192
13(805) 06-20-1907			194 ~ 208	전체
14(806) 06-27-1907	판사와 서기에 대해서, tran tan binh의 연설(6), 책 내용 인용, 사절단의 행정(5)	여성의말, 시·부·가·말, 세계소식, 신문사 알립,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광고	210 ~ 224	
15(807) 07-04-1907			226 ~ 240	전체
16(808) 07-11-1907			242 ~ 256	전체
17(809) 07-18-1907	국민본분에 대해서	여성의말,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광고	258 ~ 272	262
18(810) 07-25-1907	게으름에 대해서, tran tan binh의 연설(7)	여성의말, 시·부·가·말, 지방소식, 새책소개, 광고	274 ~ 288	280,282,290
19(811) 08-01-1907	신서번역회에 대해서(1)	시·부·가·말,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광고	292 ~ 304	290,302
20(812) 08-08-1907	유신에 대하여, 신서번역회에 대해서(2)	여성의말, 시·부·가·말, 세계소식, 신문사소식, 하노이소식, 새책소개, 지방소식, 광고	306 ~ 320	
21(813) 08-15-1907	신서번역회에 대해서(3), 쌀을 측량하는 것을 금하는 일에 대해서, 불일협약(1)	여성의말, 시·부·가·말, 새책소개, 지방소식, 광고	322 ~ 336	328,330
22(814) 08-22-1907	신서번역회에 대해서(4), 왕은 여전히 왕이다, 결백을 주장하다, 불일협약(2)	여성의말,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광고	338 ~ 352	344,346
23(815) 08-29-1907	신문에 대해서, 혜성에 대하여, 남부 사상에 대해서, 절에 대해서	새책소개, 여성의말, 시·부·가·말,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광고	352 (겹침) ~360	
24(816) 09-05-1907	의사 약사에 대해서, 독자 kich tiep씨에게 드리는 글	여성의말, 시·부·가·말,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지방소식, 새책소개, 광고	370 ~ 384	
25(817) 09-12-1907	프랑스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성의말, 세계소식, 하노이소식, 새책소개, 지방소식, 광고	386 ~ 400	
26(818) 09-19-1907	농사를 끝내는 일에 대해서, 북부지역 의회 선거에 대해서	여성의말, 시·부·가·말, 세계소식, 하노이	402 ~ 416	

		소식,지방소식,광고		
27(819) 09-26-1907	이름의 쓰임에 대해서, 추석, 신문 보내는 일에 대해서	여성의말,신문사알림,시·부·가·말,세계소식,하노이소식,지방소식,자유강단(추가),광고	418~432	
28(820) 10-03-1907	검박회에 대하여, 역무원에 대해서, 문명인척 연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강단,여성의말(휴재알림),시·부·가·말,새책소개,세계소식,하노이소식,지방소식,광고	434~448	
29(821) 10-10-1907	합군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매립의숙회에 대해서	여성의말,시·부·가·말,세계전보,지방소식,광고,	450~464	
30(822) 10-17-1907	구걸에 대해서, 인도차이나 대학국에 대해서, 옥천의숙에 대해서	여성의말,시·부·가·말,세계소식,하노이소식,지방소식,광고,	466~480	
31(823) 10-24-1907	의회선거에 대한 보충설명, 의회민회부에 대한 질의응답(1), 인도차이나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성의말,시·부·가·말,세계소식,하노이소식,지방소식,광고	482~496	
32(824) 10-31-1907	폭죽에 대하여, 의회민회부에 대한 질의응답(2), 신문사로 보내온 시에 대한 평가	여성의말,시·부·가·말,세계소식,하노이소식,지방소식,새책소개,광고	498~514	514
33(825) 11-07-1907	의회민회부에 대한 질의응답(3)	여성의말,시·부·가·말,세계소식,하노이소식,지방소식,새책소개,광고	516~530	
34(826) 11-14-1907	민회의원부에 대한 질의응답(4)	여성의말,시·부·가·말,세계소식,하노이소식,지방소식,광고	532~542	

* 발행호수는 『등고총보』의 발행호수/『대남동문일보』의 발행호수를 차례로 기재하였다.

** 신문은 국어와 한문 2개 언어로 발행했는데, 짝수쪽은 국어, 홀수쪽은 한문을 사용했다. 국어로 된 지면은 한 호당 8쪽이다. 본 표는 국어로 된 지면만 기재하였다.

*** 사설 기사는 원제를 제시하였다. 매 호 신문마다 나오는 연재 기사는 기재 순서에 따라 표기하였다.

****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지면은 결수로 표시하였다.

<표 3> “여성의 말” 기사 목록

	발행호수/ 발행연월	기사 제목	비고
1	9(801) 05.23.1907	여성교육	
2	10(802) 05.30.1907	정략 결혼	
3	12(804) 06.13.1907	여성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남성 비판	
4	14(806) 06.27.1907	여성을 희롱하는 남성	
5	17(809) 07.18.1907	여성회와 고아원 설립	
6	18(810) 07.25.1907	여자를 싸잡아 비판하는 남성독자의 태도 비판	
7	20(812) 08.08.1907	결혼 지참금 문제	
8	21(813) 08.15.1907	유신 남성의 서양옷 입기	
9	22(814) 08.22.1907	독자편지글에 대한 반박	
10	23(815) 08.29.1907	일부다처제	
11	24(816) 09.05.1907	여성의 인생	
12		일부다처제에 대한 남성 독자의 반박 편지	2편의 기사가 실렸음
13	25(817) 09.12.1907	낙후한 습관에 대하여 (초상집 문화, 유신 남성의 옷 입는 습관)	
14	26(818) 09.19.1907	결혼에 대한 독자 편지	
15	27(819) 09.26.1907	여자들의 험담하는 습관에 대해	
16	28(820) 10.03.1907	일부다처제에 대한 독자편지(하노이소식, 자유강단)	여성의 말 휴재
17	29(821) 10.10.1907	공업기술과 유신에 대하여	
18	30(822) 10.17.1907	조혼문제	
19	31(823) 10.24.1907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에 대하여	
20	32(824) 10.31.1907	일부다처제에 대한 독자 반론에 대한 재반박	
21	33(825) 11.07.1907	동경의숙 여교사가 하룻길에 희롱당한 일에 대해	
22	34(826) 11.14.1907	여성의 미신과 맹신	

* 『登高叢보』 801호부터 826호까지 실린 「여성의 말」 연재 기사를 정리한 내역이다. 기사 내용을 근거로 임의로 기사 제목을 붙였다.

<표 4> 동경의숙 교사 명단

		교사 이름
교육 반	한문반	응우옌 꾸옌(Nguyễn Quyên), 호앙 탕 비(Hoàng Tăng Bí), 르엉 쪽 담(Lương Trúc Đàm), 호앙 틱 phong(Hoàng Tích Phong), 다오 응우옌 포(Đào Nguyên Phổ), 응우옌 하이 툐(Nguyễn Hải Thần), 부 짝(Vũ Trác), 즈엉 바 짝(Dương Bá Trác)
	국어, 불어, 상식학과	응우옌 반 빈(Nguyễn Văn Vĩnh), 쩐 딘 득(Trần Đình Đức), 판 딘 도이(Phan Đình Đói), 응우옌 바 혹(Nguyễn Bá Học), 팜 주이 톤(Phạm Duy Tốn), 부이 딘 따(Bùi Đình Tá), 판 후이 툐(Phan Huy Thịnh), 르엉 티 띠(Lương Thị Tín), 응우옌 티 지옌(Nguyễn Thị Diễm)
개정반		르엉 반 간(Lương Văn Can), 응우옌 꾸옌, 응우옌 주이 히(Nguyễn Duy Hy)
선전반		호앙 탕 비, 쩐 탄 빙(Trần Tấn Bình), 르엉 쪽 담(Lương Trúc Đàm), 부 호앙(Vũ Hoàng), 응우옌 뚜옹 호영(Nguyễn Tùng Hương), 응우옌 판 랑(Nguyễn Phan Lãng), 응우옌 꾸옌, 도 꺼 광(Đỗ Cơ Quang), 판 쩌우 쩐, 즈엉 바 짝, 응우옌 반 빈, 응우옌 트엉 히옌(Nguyễn Thượng Hiền)
편찬반		르엉 반 간, 응우옌 히우 끼우(Nguyễn Hữu Cầu), 레 다이(Lê Đại), 프엉 썬 응우옌 꼰(Phương Sơn Nguyễn Côn), 노 득 케(Ngô Đức Kế), 응우옌 돈 폭(Nguyễn Đôn Phục), 호앙 틱 풍(Hoàng Tích Phụng), 판 쩌우 쩐(Phan Châu Trinh), 응우옌 히우 띠옌(Nguyễn Hữu Tiến), 팜 뜨 짝(Phạm Tư Trác)

*학교의 4개 반을 맡았던 교사의 이름은 위와 같다. (출전: Nhiều tác giả, 『100 năm Đông Kinh nghĩa thực(동경의숙 100년)』, Nxb Tri thức, 2008, pp.395~397)

Abstract

Education and Enlightenment
Activities for Cultivating
Nations by Dong Kinh Free
School in Vietnam

CHAE PRUNY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siders the education and enlightenment activities of the Tonkin(Dong Kinh) Free School(Đông Kinh nghĩa Thục, 東京義塾). Research drew from primary source documents written by the school's staff members who engaged with the theory of cultivating nations. This study focus on the faculty's mantra "to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ôn cố tri tân 溫故知新)" within the context of defining citizenship and female citizenship.

The Tonkin Free School was established in Hanoi in 1907 as the first moder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in North Vietnam.

Although the school was disbanded 9 months later by colonial authorities, i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spearheading modern education and a modern perspective on national consciousness for the Vietnamese people.

The Tonkin Free School conducted vigorous educational activities with the goal of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a Westernized nation-state through mass civil education. The teachers engaged directly in publishing textbooks and the students studied both traditional and modern disciplines. In addition to academic courses, the school fomented enlightenment activities by publishing newspapers, organizing new-books translation meetings, and holding topical lectures. The Tonkin Free School adapted "Đại Nam đồng văn nhật báo(大南同文日報)", which wa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to "Đăng cổ tòng báo(登鼓總報)" printed in Chinese and Vietnamese.

The textbooks and newspapers of the Tonkin Free School offered a path for modernizing a civilization and providi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 for constructing a modern nation-state. The faculty favored constitutional monarchy as the form of government for the new nation-state. They accepted the role of the traditional Vietnamese dynasties and recognized the value of monarchy as a patriotic symbol, within the confines of a constitutional monarchy. Because the Nguyễn(阮) Dynasty and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nominally politically left-leaning, the traditional monarchy lasted for a while.

The faculty did not lay down a clear political plan or model. It was a reaction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colonial rule in Vietnam rather than a reaction to Western interference as occurred in China and elsewhere in East Asia. Under the close watch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the faculty was not able to discuss a concrete political agenda; rather, they focused on the issue of defining citizenship.

The Tonkin free school defined the “civic education(國民教育)” as the education to qualify nations. They emphasized the vocational education, moral education, hygiene education, and physical education. Civic education was to focus on the individual’s personality and knowledge, rather than the change in laws or regulations. The essential poi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tried to cultivate a sense of patriotism. A patriotic person was considered fundamental for determining the social progress and national prosperity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cial Darwinism, therefore it has been highlighted even more in importance. But the patriotism of the Tonkin Free School still entailed loyalty to the king and the State(尊王愛國) and was not separated from filial piety(孝), which is similar to the traditional Confucian ethics.

Second, they tried to cultivate a sense of organization(ái quān 愛群). They deemed the organization of society in a cohesive group as the path for saving their country or achieving social progress, and a sense of organization was key to this. The notion of organization resonates deeply in the small community-oriented tradition of Vietnam. The Tonkin Free School expanded the sense of that identity to include society and country.

To foster a sense of organization, they emphasized moral behavior and the practice of creating diverse organizations. The theory of organization was put into practice, leading to the creation of organizations consisting of persons from diverse social sectors. The list of the new organizations established after this theory can be found on “*Đặng cổ tùng báo*”.

The Tonkin Free School insisted that the patriotic nation with a

sense of organization, capable of surviving on the competitive global stage, was a prerequisite for regaining sovereignty and preserving their civilization. They considered female nationals critical for this goal, but not all agreed on the way in which women would contribute to this modern society. Some at the school claimed that women were equal members of the nation; the others limited their role to the home. Nevertheless, both groups valued the education of women. The faculty considered the education of women a standard of advanced countries, and vital to their national independence and civilization. Both the traditional refinement and the modern knowledge were emphasized as necessary elements of the education of women.

Beyond education, the Tonkin Free School also raised the subject of women's rights. Women's rights depended on the education of woman, and it regarded as a right to be enjoyed in a civilized society. In the early 1900s, the topics related to the women's rights were actively discussed on "Đặng cổ tùng báo". In the female column on "Đặng cổ tùng báo", called "Women's Voice", the marriage of convenience, the dowry issues, polygamy, free love, female harassment, pregnancy and parenting, orphanage foundation, clothing, funerals, piety, and the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were written about and discussed in the light of women's rights.

The Tonkin Free School taught a new education, distinct from the traditional education in many ways, yet reliant on the traditional Confucian education as a base. This can be shown from the facts that they teach Chinese characters, prioritized loyalty to king and the patriotic spirit, and had a foreign recognition to be dependent on China. This is because the faculty of the Tonkin Free School were raised with a traditional Confucian education and became officials through the imperial examination, or shared similar experiences.

Construction of the nation-state based on the ideas “to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and the China-centered foreign recognition of the school demonstrate the flourishing of thought of Vietnamese intellectual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study found that the education and enlightenment development activities of the Tonkin Free School, based on researching primary sources, focused on the theory of cultivating nations and the modernizing their nation-stat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can be found from revealing that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combined modernity and tradition, based on the mantra “to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keywords : The Tonkin free school(Đông Kinh nghĩa Thục, 東京義塾), Civilization, Cultivating nations, Cultivating female citizens, to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ôn cố tri tân 溫故知新), Đăng cổ tùng báo(登鼓總報)
Student Number : 2008-23177